조선말회화

류학생용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조선말회화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4—평양

차 례

머 리 글

이 책은 우리 나라에서 공부하는 외국 류학생, 실습생들이 조선말로 회화를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만들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말은 될수록 로동자, 농민이 알아들을수 있는, 그들자신이 쓰는 쉬운 말로 해야 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12권, 606페지)

경애하는 수령님의 이 교시는 모든 사람들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의 풍부하고 다양한 언어생활에 의거하여 언어생활을 진행해야 한다는것을 밝혀주고 있다.

이 책에서는 근로인민대중의 언어생활의 한 측면을 이루며 그들의 일상생활과 한시도 뗄수 없는 입말을 대화의 형식으로 묶어주었다.

이 책의 내용구성은 여러 생활분야의 일상회화를 위주로 하였으며 류학생, 실습생들이 견학, 참관을 할 때 참고로 할수 있는것도 일부 주었다.

매개 제목은 대화의 형식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같은 내용에 대하여 여러가지 형식으로 묻고 대답할수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될수록 많이 보여주는 방향에서 하였다. (물음은 《△》, 대답은 《O》로 각각 표시하였으며 물음과 대답에서 여러가지로 말할수 있는것은 《—》로 표시하였다.)

이 책에서는 류학생, 실습생들이 단어나 문장의 뜻을 인차 알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단어의 원형을 지나치게 변화시키는것을 피하였다.

1. 인 사

△ 안녕하십니까?
　O 안녕하십니까?
△ 밤새 안녕하십니까?
　O 안녕하십니까?
△ 그새 안녕하십니까?
　O 안녕하십니까? 참 오래간만입니다.
△ 편히 주무셨습니까?
　O 예, 덕분에 잘 잤습니다.
△ 잠자리가 불편하지 않았습니까?
　O 아닙니다. 아무런 불편도 없었습니다.
△ 어디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O 아무런 불편도 없습니다.
△ 안녕히 계십시오.
　O 안녕히 가십시오.
　　— 안녕히 다녀가십시오.
　　— 편히 다녀가십시오.
　　— 살펴가십시오.
△ 안녕히 주무십시오.
　O 안녕히 가십시오.
　　— 안녕히 다녀가십시오. 더 나가지 않습니다.
　　— 잘 다녀가십시오.
　　— 밤길에 조심해 다녀가십시오.
△ 먼길에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 먼길에 수고하셨습니다.
　　— 먼길에 수고가 많았겠습니다.
　O 수고한게 없습니다.
　　— 수고는 무슨 수고겠습니까?

— 괜찮습니다.

△ 가족들도 다 편안합니까?

— 가족들도 다 잘 있습니까?

○ 예, 덕분에 모두 잘 있습니다.

— 예, 다 잘 지냅니다.

— 예, 별일없이 다 잘 있습니다.

△ 이렇게 만나게 되여 참 기쁩니다.

— 이렇게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 예, 저 역시 기쁩니다.

△ 이게 얼마만입니까?

○ 참 오래간만입니다.

△ 그새 어떻게 지냈습니까?

○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 그새 늙지 않았습니다.

— 그새 더 젊어진것 같습니다.

— 그새 더 젊어지셨군요.

○ 선생님(동무)도 여전하십니다.

— 선생님(동무)도 여전하시군요.

△ 안녕하십니까?

○ 누구신지요?

△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 글쎄요, 어디서 뵈온것 같은데…

△ 10년전 혁명전적지를 답사할 때 같이 다니지 않았습니까?

○ 아, 생각납니다. 그때 우리 답사조를 책임졌던 분이시군요.

△ 예, 알아보셨군요.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여 정말 반갑습니다.

○ 이거 참 미안합니다. 하마트면 알아보지 못할 번했습니다.

— 이거 미처 알아보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 원, 별말씀을 다하십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세월이 있지 않습니까?

○ 다시 만나니 정말 기쁩니다.

△ 이렇게 찾아와서 방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 들어가도 괜찮습니까?

— 들어가도 좋습니까?

○ 괜찮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기다리던 참인데 마침 잘 오셨습니다.

— 참 잘 왔습니다.

△ 이렇게 바쁜 시간을 빼앗아서 미안합니다.

○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려워 말고 또 오십시오.

△ 오늘 페를 많이 끼쳤습니다.

— 오늘 많은 페를 끼쳤습니다.

○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도리여 제가 미안합니다.

△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 안녕히 다녀가십시오. 또 오십시오.

△ 오늘 수고를 많이 끼쳤습니다.

— 오늘 많은 수고를 끼쳤습니다.

○ 괜찮습니다. 수고는 무슨 수고입니까?

— 별말씀을 다 하십니다.

— 천만의 말씀입니다.

— 그만한걸 가지고 뭘 그러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 어서 오십시오. 수고하는게 없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수고가 많았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수고한게 없습니다. 잘 다녀가십시오.

— 수고는 무슨 수고겠습니까? 또 오십시오.

— 괜찮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 수고하시겠습니다.

—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 그럼 부탁하겠습니다.

○ 수고할게 있습니까?

— 수고랄게 있습니까?

— 수고는 무슨 수고겠습니까?

△ 수고하십시오.

○ 안녕히 가십시오.

— 또 오십시오

△ 도와주어서 고맙습니다.

○ 별말씀 다 하십니다.

— 괜찮습니다.

△ 수고를 끼쳐서 미안합니다.

○ 미안할게 있습니까?

— 그런걸 가지고 뭘 그러십니까?

△ 잘 가르쳐주어서 고맙습니다.

○ 별말씀 다 하십니다.

△ 어떻게 감사를 드렸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 감사는 무슨 감사입니까?

△ 저의 인사를 꼭 전해주십시오.

—가족들에게 저의 인사를 전해주십시오.

○ 예, 꼭 전하겠습니다.

2. 소 개

△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 저는 김철수라고 부릅니다. 미안하지만 동무는 어느 나라에서 왔습니까?

○ ××에서 왔습니다.

△ 이름은 어떻게 부릅니까?

○ ×××라고 합니다.

— ×××입니다

△ 이렇게 알게 되여 반갑습니다.

○ 저 역시 기쁩니다.

△ 그럼 저의 동무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동무는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문학부에서 공부하는 리영남입니다.

○ 그렇습니까? 알게 되여 기쁩니다.

△ 이 동무는 박옥희입니다. 김일성종합대학 력사학부에서 공부합니다.

○ 저는 조선말을 배운 다음 조선력사를 공부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많이 도와주십시오.

△ 우리는 이제부터 동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 앞으로 동무들에게 많은 수고를 끼치게 되였습니다.

그럼 우리 동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동무는 ×××입니다. 앞으로 조선어문학부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 아, 그렇습니까? 저도 조선어문학부에 있는데 같이 공부해봅시다.

○ 이 동무는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조선말을 배우고 조선의 주체예술을 배우게 됩니다. ×××이라고 부릅니다.

△ 참 모두들 전공과목이 훌륭합니다.

○ 우리는 동무들이 많이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 우리모두 한가정의 친형제들처럼 서로 돕고 이끌면서 공부를 잘해나갑시다.

○ 예, 그럽시다.

— 동무들이 도와주겠다니 기쁩니다.

△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 미안하지만 한가지 물어봐도 괜찮겠습니까?

— 미안하지만 한가지 물어볼수 있습니까?

— 미안하지만 한가지 묻겠습니다.

○ 어서 말씀하십시오.

— 무슨 말씀인데요?

△ 저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 어느분말입니까?

△ 저기 도서관에 들어가시는분말입니다.

○ 예, 그분은 우리 문법선생님입니다.

△ 이름은 어떻게 부릅니까?

○ ×××라고 합니다.

△ 옳습니다. 저는 바로 저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문법선생님을 찾아왔습니까?

△ 예, 나의 선배들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 선배들이라니요?

△ 나보다 먼저 조선에 와서 류학을 한 동무들입니다.

○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 선생님한테서 배웠는가요?

△ 예, 그분은 ×××선생님한테서 문법을 배웠는데 이번에 내가 조선에 류학을 오게 된걸 알고 선생님에게 자기들의 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하였습니다.

○ 그런데 선생님을 용케 알아보았습니다.

△ 우리 동무들이 찍은 졸업사진에서 선생님의 얼굴을 익혀두었습니다.

○ 아, 그랬댔구만요.

△ ×××선생님은 지금도 문법을 가르치시는가요?

○ 예, 얼마전에 박사론문을 공개했는데 지금 새로운 문법책을 쓰고있습니다.

△ 그럼 선생님의 박사론문을 읽을수 있겠군요.

○ 있구말구요.

△ 선생님을 만나뵈워야 하겠는데…

○ 나하구 같이 도서관으로 갑시다.

△ 이거 바쁘시겠는데 안됐습니다.

○ 괜찮습니다. 나도 거기로 가는 길입니다.

△ 감사합니다.

○ 어서 갑시다.

△ 동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 이름을 어떻게 부릅니까?

○ 김천수입니다.

— 김철수라고 부릅니다.

△ 어디서 무슨 일을 합니까?

○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문학부에서 공부합니다.

—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문학부 학생입니다.

—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에서 연구사로 일합니다.

—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연구사입니다.

— 김종태전기기관차공장 제관직장에서 작업반장으로 일합니다.

— 김종태전기기관차공장 재관직장 작업반장입니다.

△ 동무는 어디서 삽니까?

○ 대학기숙사에서 삽니다.

△ 동무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 강원도 원산입니다.

△ 부모님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 고향에 계십니다.

△ 부모님들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 아버지는 수산사업소에서 선장으로 일하시고 어머니는 의학대학병원 의사입니다.

△ 이렇게 알게 되여 참 기쁨니다.

○ 저 역시 기쁨니다.

3. 나 이

△ 동무는 몇살입니까?

○ 스물한살입니다.

△ 동무는 언제 출생하였습니까?

○ 저는 1961년 2월 5일에 출생하였습니다.

— 저의 생일은 1961년 2월 5일입니다.

△ 동무는 몇살때 인민학교에 들어갔습니까?

○ 7(일곱)살때 인민학교에 들어갔습니다.

△ 동무는 몇살에 고등중학교를 마쳤습니까?

○ 17(열일곱)살에 마쳤습니다.

△ 동무는 몇살에 대학에 입학했습니까?

○ 17살에 입학했습니다.

△ 동무의 아버지는 나이가 몇이십니까?

○ 53(쉰세)살입니다.

△ 동무의 어머니는 몇살이십니까?

○ 51(쉰한)살입니다.

△ 동무의 할아버지는 나이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 76(일흔여섯)살이십니다.

△ 나이가 많으십니다.

○ 예, 그렇지만 지금도 정정하십니다.

△ 일은 못하시겠지요?

○ 웬걸요. 할아버지는 《60(륙십)청춘 90(구십)환갑》이라고 하면서 지금도 젊은이들 못지않게 일하신답니다.

△ 정말 대단하십니다.

○ 해방전 같으면 생각이나 할수 있겠습니까?

△ 지금 조선인민의 평균수명은 몇살입니까?

○ 우리 인민들의 평균수명은 해방전에 비하여 36(서른여섯)살이나 늘어나 74(일흔네)살에 이르렀습니다.

△ 그러니까 해방전에 비하여 2곱이상이나 오래 사는군요!

○ 예,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우리 인민은 누구나 다 병없이 건강하게 오래 살며 행복을 누리고있습니다.

* *

△ 철수동무는 몇살입니까?

○ 22(스물두)살입니다.

△ 영남동무는 몇살입니까?

○ 그도 역시 22살입니다.

△ 그러니까 동갑이군요.

○ 그렇습니다.

△ 영철동무는 몇살입니까?

○ 23(스물세)살입니다.

— 그는 영남동무보다 한살 우입니다.

— 그는 영남동무보다 한살 더 먹었습니다.

△ 순희동무는 몇살입니까?

○ 21(스물한)살입니다.

— 그는 영남동무보다 한살 아래입니다.

△ 학급에서 누가 제일 어립니까?

○ 순희동무가 제일 어립니다.

△ 학급에서 누가 제일 나이 많습니까?

○ 영철동무가 제일 나이 많습니다.

〔보충〕

— 형님은 나보다 세살 더 먹었습니다.
— 동생은 나보다 두살 어립니다.
— 조카는 난지 한돌이 됩니다.
— 딸은 이제 만 세살입니다.
— 오늘은 우리 할머니 환갑날입니다.
— 래일은 영희의 생일날입니다.
— 그 동무는 나이보다 젊어(늙어)보입니다.
— 우리 어머니는 점점 젊어집니다.
— 우리 선생님은 40(마흔)살쯤 됩니다.
— 그는 나와 동갑입니다. 그런데 두달 먼저(늦게) 났습니다.
— 나는 7살(만 6살)에 인민학교에 입학했습니다.
— 나는 24(스물네)살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 그는 28(스물여덟)살에 준박사가 되였습니다.

4. 날자, 요일

1) 날자

△ 오늘이 며칠입니까?

○ 9월 4일입니다.

— 9월 초나흘입니다.

△ 어제가 며칠이였습니까?

○ 9월 3일이였습니다.

— 9월 초사흘이였습니다.

△ 그제는 며칠이였습니까?

○ 9월 2일이였습니다.

— 9월 초이틀이였습니다.

△ 그그제(그그저께)는 며칠이였습니까?

○ 9월 1일이였습니다.

— 9월 초하루였습니다. 이날은 개학날입니다.

○ 래일은 며칠입니까?

○ 9월 5일입니다. 이날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신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는 매해 이날을 《교육절》로 기념하고있습니다.

△ 모레는 며칠입니까?

○ 9월 6일입니다.

△ 글피는 며칠입니까?

○ 9월 7일입니다.

△ 그글피는 며칠입니까?

○ 9월 8일입니다.

△ 그 다음날이 9월 9일이군요.

○ 예, 9월 9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신 뜻깊은 날입니다.

△ 9.9절(구구절)까지 이제 며칠 남았습니까?

○ 닷새 남았습니다.

— 5일 남았습니다.

△ 김일성종합대학은 언제 창립되였습니까?

○ 1946년 10월(시월) 1일에 창립되였습니다.

△ 올해에 김일성종합대학은 창립 몇돐을 맞이합니까?

○ ××돐을 맞이합니다.

*　　　　*

△ 동무는 언제 조선에 왔습니까?

— 동무는 어느날 조선에 왔습니까?

○ 8월 25일에 왔습니다.

△ 동무는 언제 조국을 떠났습니까?

— 동무는 어느날 조국을 떠났습니까?

○ 8월 23일에 떠났습니다.

△ 조선에 오는데 며칠 걸렸습니까?

○ 3일(사흘) 걸렸습니다.

△ 동무는 조선에 온지 며칠 되였습니까?

○ 4일(나흘) 되였습니다.

— 한주일 되였습니다.

— 10일(열흘) 되였습니다.

— 15일(보름) 되였습니다.

— 한달 되였습니다.

△ 동무는 조선에 며칠 있습니까?

— 동무는 조선에 몇날(몇달, 몇해)있게 됩니까?

○ 20일(스무날) 있습니다.

— 두달 있게 됩니다.

— 1년 있게 됩니다.

△ 동무는 언제 조국으로 갑니까?

— 동무는 어느날 조국으로 떠납니까?

○ 11월 3일에 갑니다.

— 11월 3일에 떠납니다.

△ 평양에서 베이징까지는 기차로 며칠 걸립니까?

○ 하루 걸립니다.

△ 평양에서 쁘라하까지는 비행기로 며칠 걸립니까?

○ 한나절 걸립니다.

*　　　　*

△ 어느날부터 방학이 시작됩니까?

— 언제부터 방학입니까?

○ 이달 23일부터 방학입니다.

△ 방학은 며칠동안입니까?

○ 한달동안입니다.

△ 철수동무는 언제 고향으로 떠납니까?

○ 래일 떠납니다.

△ 영남동무는 언제 대학으로 돌아옵니까?

○ 모레쯤 올것 같습니다.

△ 실습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 다음달 5일부터 시작됩니다.

△ 실습은 며칠동안입니까?

○ 석달동안입니다.

△ 이번 학기는 며칠 남았습니까?

○ 12일(열이틀) 남았습니다.

*　　　　*

△ 동무는 이 장편소설을 며칠동안에 다 읽었습니까?

○ 4일(나흘)동안에 다 읽었습니다.

△ 예술영화 《이름없는 영웅들》은 어느날부터 돌립니까?

○ 17일부터 돌립니다.

△ 하루에 몇부씩 돌립니까?

○ 한부씩 돌립니다.

△ 《로동신문》은 매일 나옵니까?

○ 예, 매일 나옵니다.

△ 《천리마》잡지는 한달에 한번씩 나옵니까?

○ 예, 한달에 한번씩 나옵니다.

△ 잡지 《문화어학습》은 1년에 몇번 나옵니까?

○ 네번 나옵니다.

△ 이 백화점은 한주일에 몇번 쉽니까?

○ 한주일에 한번씩 쉽니다.

△ 이 도서관은 어느날 쉽니까?

○ 쉬는날이 없습니다.

2) 요일

△ 오늘은 무슨 요일입니까?

○ 수요일입니다.

△ 어제는 무슨 요일이였습니까?

○ 화요일이였습니다.

△ 그제는 무슨 요일이였습니까?

○ 월요일이였습니다.

△ 래일은 무슨 요일입니까?

○ 목요일입니다.

△ 모레는 무슨 요일입니까?

○ 금요일입니다.

△ 글피는 무슨 요일입니까?

○ 토요일입니다.

△ 그글피는 무슨 요일입니까?

○ 일요일입니다.

△ 월요일에는 몇강의를 받습니까?

○ 세강의를 받습니다.

△ 토요일에는 몇강의를 받습니까?

○ 두강의를 받습니다.

△ 화요일에는 무슨 강의가 있습니까?

○ 《조선문화어강독》, 《조선문화어문법》, 《조선력사》 강의가 있습니다.

△ 수요일에는 무슨 시험을 칩니까?

○ 《조선말회화》시험을 칩니다.

△ 문법시험은 어느 요일에 있습니까?

○ 목요일에 있습니다.

△ 이번주일에는 어느날 참관이 있습니까?

○ 금요일에 있습니다.

△ 토요일에는 무엇을 합니까?

○ 오전에 강의를 받고 오후에 영화관람을 합니다.

△ 일요일은 어떻게 지냅니까?

○ 체육경기도 하고 텔레비죤도 보면서 재미있게 보냅니다.

* *

△ 국제렬차는 어느 요일에 떠납니까?

○ 수요일과 토요일에 떠납니다.

△ 국제렬차는 어느 요일에 도착합니까?

○ 화요일과 금요일에 도착합니다.

△ 비행기는 어느 요일에 떠납니까?

○ 화요일과 목요일에 떠납니다.

△ 비행기는 어느 요일에 도착합니까?

○ 월요일과 수요일에 도착합니다.

5. 시간, 시계

1) 시간

△ 지금 몇시입니까?

ㅇ 8(여덟)시입니다.

— 정각 12(열두)시입니다.

— 1(한)시 반입니다.

— 9(아홉)시 25(이십오)분입니다.

— 10(열)시 43(사십삼)분 21(이십일)초입니다.

— 2(두)시 10(십)분전입니다.

— 오전 11(열한)시입니다.

— 오후 5(다섯)시입니다.

— 아침 7(일곱)시입니다.

— 낮 2(두)시입니다.

— 밤 10(열)시입니다.

△ 지금 몇시쯤 되였습니까?

ㅇ 10(열)시쯤 되였습니다.

— 아마 12(열두)시쯤 된것 같습니다.

— 한 6(여섯)시쯤 된것 같습니다.

— 3(세)시 반쯤 된것 같습니다.

— 서너(3~4)시쯤 된것 같습니다.

— 네댓(4~5)시쯤 된것 같습니다.

— 대여섯(5~6)시쯤 된것 같습니다.

△ 9(아홉)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ㅇ 정각 9(아홉)시입니다.

— 방금 9(아홉)시가 지났습니다.

— 5(오)분 지났습니다.

— 3(삼)분전입니다.

— 아직 10(십)분 있습니다.

△ 동무는 몇시에 일어납니까?

ㅇ 아침 6(여섯)시에 일어납니다.

△ 동무는 몇시에 아침을 먹습니까?

ㅇ 7시부터 7시 반사이에 아침을 먹습니다.

△ 동무는 몇시에 점심식사를 합니까?

ㅇ 1시부터 1시 반사이에 점심식사를 합니다.

△ 동무는 몇시에 저녁을 먹습니까?

— 동무는 몇시에 저녁식사를 합니까?

ㅇ 7시 반부터 8시사이에 저녁을 먹습니다.

— 7시 반부터 8시사이에 저녁식사를 합니다.

△ 강의는 몇시에 시작됩니까?

— 몇시에 강의를 시작합니까?

ㅇ 8시 반에 시작됩니다.

— 8시 반에 강의를 시작합니다.

△ 한강의는 몇분입니까?

ㅇ 90분입니다.

△ 쉬는 시간은 몇분입니까?

ㅇ 10분입니다.

△ 강의는 몇시에 끝납니까?

—몇시에 강의가 끝납니까?

ㅇ 두강의일 때는 11시 40분에 끝나고 세강의일 때는 1시 반에 끝납니다.

△ 몇분후에 강의가 시작됩니까?

— 강의시간까지 몇분 남았습니까?

— 강의시간까지 몇분 있습니까?

ㅇ 30분후에 강의가 시작됩니다.

— 강의시간까지 30분 있습니다.

— 강의시간까지 30분 남았습니다.

△ 기숙사에서 대학까지 몇분이나 걸립니까?

— 기숙사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몇분 걸립니까?

— 기숙사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몇분이면 됩니까?

○ 한 10분쯤 걸립니다.

— 한 10분이면 됩니다.

— 한 10분이면 갑니다.

△ 강의가 언제 끝났습니까?

— 강의가 끝난지 몇분이나 되였습니까?

○ 30분전에 끝났습니다.

— 강의가 끝난지 한 30분 되였습니다.

△ 동무는 하루에 몇시간동안 공부합니까?

○ 11시간동안 공부합니다. 오전에 대학에서 6시간 공부하고 오후에 기숙사나 도서관에서 5시간 공부합니다.

△ 동무는 몇시에 잡니까?

— 동무는 몇시에 자리에 눕습니까?

○ 밤 11시에 잡니다.

— 밤 11시에 자리에 눕습니다.

△ 동무는 하루에 몇시간 잡니까?

○ 7시간 잡니다.

* *

△ 텔레비죤방송을 몇시에 시작합니까?

— 텔레비죤방송을 몇시부터 합니까?

○ 오후 5시에 시작합니다.

— 오후 5시부터 합니다.

△ 텔레비죤방송이 몇시에 끝납니까?

— 텔레비죤방송을 몇시까지 합니까?

○ 밤 11시에 끝납니다.

— 밤 11시까지 합니다.

△ 텔레비죤방송을 몇시부터 몇시까지 합니까?

○ 오후 5시부터 밤 11시까지 합니다.

△ 일요일도 같습니까?

— 일요일에는 어떻게 합니까?

○ 일요일에는 오전방송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오후방송을 3시부터 밤 11시반까지 합니다.

△ 평양에서 원산까지 자동차로 몇시간 걸립니까?

○ 3시간 걸립니다.

△ 평양에서 신의주까지 기차로 몇시간 걸립니까?

○ 4시간 걸립니다.

△ 평양에서 베이징까지 비행기로 몇시간 걸립니까?

○ 1시간 반 걸립니다.

* *

△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 괜찮습니다.

△ 기다린지 오랩니까?

○ 아닙니다. 한 10분 기다렸습니다.

△ 공연을 몇시에 시작합니까?

○ 8시에 시작합니다.

△ 이제 몇분 남았습니까?

○ 한 20분쯤 남았습니다.

△ 몇시까지 가야 합니까?

○ 7시 50분까지 가야 합니다.

— 8시 10분전까지 가야 합니다.

△ 너무 이르지 않습니까?

○ 예, 좀 이릅니다.

— 아닙니다, 좀 늦었습니다.

△ 너무 늦지 않았습니까?

○ 예, 좀 늦었습니다.

— 아닙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 공연은 몇시간 걸립니까?

○ 2시간 걸립니다.

△ 공연은 몇시에 끝납니까?

○ 10시에 끝납니다.

△ 몇시에 돌아올수 있습니까?

○ 10시 10분에 돌아올수 있습니다.

△ 몇시에 떠나기로 했습니까?

○ 7시 40분에 떠나기로 했습니다.

2) 시계

△ 이 손목시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 《모란봉》입니다.

△ 그 시계는 자동시계입니까?

○ 예, 자동입니다.

— 아닙니다.

△ 저 벽시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 《개성》입니다.

△ 저 탁상시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 《만경봉》입니다.

△ 동무의 시계는 잘 갑니까?

○ 예,잘 갑니다.

△ 동무의 시계는 잘 맞습니까?

○ 예,잘 맞습니다.

— 잘 맞지 않습니다.

— 좀 빠릅니다. 하루에 10초쯤 빨라집니다.

— 좀 늦습니다. 하루에 10초쯤 늦어집니다.

△ 그 시계는 날자와 요일이 나옵니까?

○ 날자만 나옵니다.

— 예,다 나옵니다.

— 날자도 나오고 요일도 나옵니다.

△ 저 벽시계는 며칠에 한번씩 태엽을 줍니까?

○ 한주일에 한번씩 줍니다.

△ 이 탁상시계는 종이 울립니까?

○ 예, 종이 울립니다.

△ 몇시에 종이 울리게 맞추어놓았습니까?

○ 3시 반에 맞추어놓았습니다.

△ 동무는 시간을 어디에 맞춥니까?

○ 라지오방송에 맞춥니다.

△ 이 시계는 왜 멎었습니까?

○ 고장이 났습니다.

— 태엽을 제때에 주지 않았습니다.

△ 어디에 고장이 났습니까?

— 무엇이 고장입니까?

○ 유사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 자동장치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 시계수리소에 가보았습니까?

○ 이제 가려고 합니다.

— 오후에 갈가 합니다.

△ 시계줄을 어디서 살수 있습니까?

○ 일용품상점에서 살수 있습니다.

6. 절기와 날씨

1) 절기

△ 조선의 절기는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네철로 나누어집니다.

△ 봄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 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 3월부터 시작됩니다.

— 3월부터 5월까지입니다.

△ 봄철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 따뜻합니다. 봄이 오면 산과 들에서는 눈이 녹고 강에서는 얼음이 풀립니다.

△ 봄에 제일 먼저 피는 꽃들은 어떤 꽃입니까?

○ 개나리와 진달래입니다.

△ 진달래는 언제 핍니까?

○ 4월초에 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진달래를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라고 합니다.

△ 그 다음에는 어떤 꽃들이 핍니까?

○ 살구꽃, 복숭아꽃이 핍니다.

△ 봄에는 어떤 농사일들을 합니까?

○ 논밭을 갈고 모내기도 하고 강냉이영양단지도 옮깁니다.

△ 그때면 농촌이 들끓겠군요.

○ 예, 뜨락또르, 모내는기계, 자동차들이 쉴새없이 움직이고 농촌을 지원하는 사람들로 온 협동벌이 떠들썩합니다.

△ 봄에 비가 자주 옵니까?

○ 비가 적게 옵니다.

△ 그러면 농사에 지장이 없습니까?

○ 일없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로 수리화가 완성되여 어딜 가나 관개수가 흘러넘치기때문에 비가 적게 와도 물걱정을 모르고 농사를 안전하게 짓습니다.

△ 봄을 맞아 들끓는 조선의 협동벌을 한번 보고싶습니다.

○ 언제 한번 시간을 내서 농촌에 나가봅시다.

* *

△ 여름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 여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 6월(류월)부터 시작됩니다.

— 6월부터 8월까지입니다.

△ 여름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 무덥습니다. 산과 들에는 록음이 우거지고 곡식들은 이삭이 패기 시작합니다.

△ 여름철에는 어떤 농사일을 합니까?

○ 주로 김매기를 합니다.

△ 김매기를 어떻게 합니까?

○ 우리 농민들은 기계로 김을 맵니다. 지난날 가장 고된 농사일의 하나였던 김매기가 오늘은 홍겨운 일로 되였습니다.

△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립니까?

○ 예, 많이 내립니다. 때때로 장마가 지기도 합니다.

△ 장마가 지면 피해가 심하지 않습니까?

○ 일없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치산치수사업을 잘하였기때문에 큰물피해를 모릅니다.

△ 여름에 학생들은 무엇을 합니까?

○ 제일 무더운 7, 8월(칠팔월)에 여름방학을 합니다. 그때면 학생들은 경치좋은 바다가나 명승지들에 가서 즐거운 야영생활을 합니다.

△ 야영생활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 려비와 식사비를 비롯한 야영생활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다 국가가 부담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학생들과 근로자들이 야영생활과 휴양생활을 모두 무료로 하고있습니다.

*　　　*

△ 조선의 가을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 가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 9월부터 시작됩니다.

— 9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 가을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 가을에는 맑은 날씨가 계속되고 서늘합니다. 산에는 단풍이 들고 들에서는 곡식이 여물고 과일들이 익습니다.

△ 가을의 농촌은 참 불만하겠습니다.

○ 그렇습니다. 여러가지 기계로 가을걷이를 하고 과일을 따들입니다. 어디를 가나 만풍년의 흥겨운 노래소리가 울려퍼집니다.

△ 첫서리는 언제 내립니까?

○ 10월말부터 11월초사이에 내립니다.

△ 학생들은 언제 새학기를 맞이합니까?

○ 9월부터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 가을에 풍년든 협동벌과 금강산, 묘향산의 경치를 보았으면 합니다.

○ 예, 한번 꼭 가보십시오.

*　　　*

△ 조선의 겨울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 겨울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 12월부터 시작됩니다.

—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입니다.

△ 겨울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 찬바람이 불고 춥습니다. 눈이 내리고 강물이

얼어붙습니다.

△ 그러면 스키와 스케트를 탈수 있겠군요.

○ 예, 겨울이면 청소년학생들과 근로자들이 스키장과 얼음판을 찾아갑니다.

△ 농민들은 겨울에 무엇을 합니까?

○ 새해농사차비도 하고 휴양소에 가서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냅니다.

△ 학생들은 겨울방학을 하겠군요.

○ 예, 설날을 앞두고 겨울방학을 시작합니다.

△ 설날은 어떻게 보냅니까?

○ 전체 인민이 설날아침에 위대한 수령님께 새해인사를 올리고 가족, 친척들과 함께 설명절을 즐깁니다.

2) 날씨

△ 오늘 날씨는 어떻습니까?

— 오늘은 날씨가 어떻습니까?

○ 오늘은 맑게 개이고 무덥습니다.

△ 어제는 날씨가 어떠했습니까?

○ 어제는 흐리고 이따금 비가 내렸습니다.

△ 래일은 날씨가 어떠할것 같습니까?

— 래일 날씨는 어떻겠습니까?

○ 개일것 같습니다.

— 흐릴것 같습니다.

△ 언제 비가 왔습니까?

○ 낮에 왔습니다.

△ 언제 비가 멎었습니까?

○ 저녁때 비가 멎었습니다.

△ 갑자기 검은 구름이 덮이는걸 보니 소나기가 올것 같습니다.

○ 우산과 비옷을 가지고나오지 않아서 비를 맞게 되였습니다.

△ 그럼 어디에 들어가서 소나기를 긋는것이 어떻습니까?

○ 그게 좋을것 같습니다.

— 그렇게 합시다.

— 그럽시다.

△ 번개가 치고 우뢰가 웁니다.

○ 비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 저기 지붕밑에 들어갑시다.

○ 빨리 갑시다.

△ 소나기가 온 뒤여서 시원합니다.

○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 하늘에 무지개가 섰습니다.

○ 참 아름다운 무지개입니다.

*　　　*

△ 오늘 날씨는 어떻습니까?

○ 눈보라가 일고 몹시 춥습니다.

△ 언제 눈이 왔습니까?

○ 밤에 왔습니다.

△ 언제 눈이 멎었습니까?

○ 새벽에 멎었습니다.

△ 스케트를 타러 가지 않겠습니까?

○ 이렇게 추운 날씨에 스케트는 무슨 스케트입니까?

△ 추운 날에 운동을 해야 몸이 단련됩니다.

○ 옳습니다. 그럼 이제 곧 갑시다.

△ 외투도 입고 털모자도 쓰고 옷을 든든히 입으십시오.

○ 걱정마십시오. 운동복을 잊지 마십시오.

△ 아이들은 추운줄도 모르고 눈사람을 만듭니다.

○ 저 아이들은 눈싸움을 합니다.

△ 오늘 기온이 몇도나 될것 같습니까?

○ 령하 15도는 되겠습니다.

〔보충〕

— 봄이 왔습니다.
— 땅이 녹습니다.
— 얼음이 녹습니다.
— 안개가 많이 끼였습니다.
— 아침안개가 어찌나 짙은지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납니다.
— 나무가지에 움이 틉니다.
— 아지랑이가 피여오릅니다.
— 벌과 나비들이 꽃을 찾아 날아다닙니다.
— 해볕이 따뜻하게 내려쪼입니다.

— 여름이 왔습니다.
— 풀이 무성하고 록음이 우거졌습니다.
— 곡식들이 푸르싱싱 자라납니다.
— 비가 내립니다.(옵니다)
— 보슬비(궂은비)가 옵니다.
— 소나기가 쏟아집니다.
— 나무그늘밑이 서늘합니다.
— 부채질을 합니다.
— 선풍기를 돌립시다.
— 너무 더워서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 바다에서 해수욕을 합니다.
— 강에서 미역을 감습니다.
— 풀잎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 땀을 흘립니다.
— 땀이 비오듯합니다.
— 그늘밑에서 땀을 좀 들입시다.

— 가을이 왔습니다.
— 산과 들에 단풍이 들었습니다.
— 하늘은 높고 푸릅니다.
— 곡식이 여물고 과일이 익습니다.
— 벌판에서는 황금물결이 설레입니다.
— 나무잎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 서리가 하얗게 내렸습니다.
— 나무잎이 떨어집니다.
— 동녘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 저녁노을이 붉게 탑니다.
—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합니다.
— 선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 겨울이 왔습니다.
— 날씨가 춥습니다.
— 맵짠 바람이 붑니다.
— 눈이 내립니다. (옵니다.)
— 함박눈(싸락눈)이 퍼붓습니다. (내립니다.)
— 눈보라가 입니다.
— 눈보라가 칩니다.
— 눈보라때문에 앞을 가려볼수 없습니다.
— 땅이 얼었습니다.
— 강물이 얼어붙었습니다.
— 손(발)이 시립니다.
— 온몸이 떨립니다.
— 추위가 뼈속까지 스며듭니다.
— 강추위가 계속됩니다.

7. 기숙사생활

△ 동무네 기숙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 대학에서 200(이백)메터쯤 떨어진곳에 있습니다.
— 대학에서 멀지 않은곳에 있습니다.
△ 기숙사는 몇층입니까?
○ 5(오)층입니다.
△ 동무의 방은 몇층에 있습니까?
○ 3층에 있습니다.
△ 몇호실입니까?
○ 316(삼백십륙)호실입니다.
△ 동무네 호실에는 몇명이 있습니까?
○ 2(두)명이 있습니다.
△ 누구와 같이 있습니까?
○ 조선동무와 같이 있습니다.
△ 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 김철수입니다.
△ 그는 어느 학부에서 공부합니까?
○ 조선어문학부에서 공부합니다.
△ 동무의 방은 어떻게 꾸려졌습니까?
○ 벽정면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초상화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비품들이 다 갖추어져있습니다.
△ 어떤 비품들이 있습니까?
○ 책상, 걸상, 책장, 옷장, 이불장, 침대, 신발장을 비롯하여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비품들이 다 있습니다.

△ 책상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 라지오와 탁상등이 있습니다.
△ 동무는 몇시에 일어납니까?
○ 6(여섯)시에 일어납니다.
△ 아침에 어떤 일들을 합니까?
○ 먼저 체조를 20(이십)분쯤 하고 청소도 하고 세수도 합니다.
△ 식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 식당에서 합니다.
△ 식당은 어디에 있습니까?
○ 기숙사 1층에 있습니다.
△ 오전에는 무엇을 합니까?
○ 대학에서 강의를 받습니다.
△ 오후에는 무엇을 합니까?
○ 기숙사나 도서관에서 복습도 하고 기숙사마당에서 운동도 합니다.
△ 밤에는 무엇을 합니까?
○ 숙제도 하고 텔레비죤이나 신문, 잡지를 보면서 쉬기도 합니다.
△ 기숙사생활에서 불편한 점이 없습니까?
— 기숙사생활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 불편한 점이 없습니다. 모든것이 다 만족합니다.
— 불편하지 않습니다.
— 아무런 불편도 없습니다.

〔보충〕

— 이불(담요)을 덮고 잡니다.
— 이불을 갭니다.
— 베개를 베고 잡니다.

— 옷을 옷걸개에 겁니다.
— 신발을 신발장에 넣습니다.
— 방바닥을 비자루로 쓸고 걸레로 닦습니다.
— 쓰레기는 쓰레받기에 담아서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 세수칸에는 찬물과 더운물이 하루종일 나옵니다.
— 치솔로 이를 닦습니다.
— 찬물(더운물)로 세수를 합니다.
— 찬물로 랭수마찰을 합니다.
— 더운물로 목욕을 합니다.
— 간단한 빨래는 자체로 합니다.
— 수건으로 얼굴을 씻습니다.
— 빗으로 머리를 빗습니다.
— 옷솔로 옷을 텁니다.
— 구두솔로 구두를 닦습니다.
— 다리미로 옷을 다립니다.
— 다림질칸이 따로 있습니다.
— 관리원에게 열쇠를 맡깁니다.
— 어두워지면 불을 켭니다.
— 불을 끄고 자리에 눕습니다.
— 매 층에 휴게실이 있습니다.
— 매 층에 위생실(화장실)이 있습니다.
— 방안에서는 방안신을 신습니다.
— 하불은 한주일에 한번씩 바꿉니다.
— 화분도 가꾸고 금붕어도 기릅니다.
— 나드는문옆에 거울이 걸려있습니다.
— 화장대에는 세수비누, 치솔, 치약, 크림, 머리기름, 향수, 살결물, 면도칼 등이 있습니다.

8. 대학생활

△ 첫강의는 몇시에 시작합니까?

○ 8시 반에 시작합니다.

△ 오늘 시간표는 어떻게 되여있습니까?

— 오늘은 무슨 강의가 있습니까?

○ 첫째 강의는 《조선어》이고 둘째 강의는 《조선말회화》입니다.

△ 강의시간이 되였습니다.

○ 자, 모두 자리에 앉읍시다.

△ 교원: 안녕하십니까?

○ 학생들: 안녕하십니까?

△ 앉으십시오.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결석생이 없습니까?

○ 없습니다. 다 왔습니다.

△ ××동무, 어제 머리가 아파서 조퇴를 했댔는데 이젠 일없습니까?

○ 일없습니다. 병원에 가서 약을 타먹고 좀 쉬였더니 괜찮습니다.

△ 요새 감기가 도는것 같은데 다른 동무들도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운동을 정상적으로 하면서 몸을 단련하기때문에 감기에 걸리지 않습니다. 어제는 담당의사선생님이 찾아와서 감기예방약까지 주었습니다.

△ 동무들은 한명의 결석생, 지각생, 조퇴생도 없이 모두 건강한 몸으로 공부를 잘하여야 합니다.
그럼 오늘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숙제를 다 해왔습니까?

○ 예, 다 해왔습니다.

△ ××동무와 ××동무는 칠판에 나와 짧은 문장을 지으십시오.
다른 동무들은 숙제장을 봅시다.

○ 선생님, 이 문장이 정확한지 잘 봐주십시오.

△ 이 문장에서는 이 토가 잘못 씌였습니다. 잘 생각해보고 다시 지으십시오.

○ 이렇게 고치면 어떻습니까?

△ 예, 이제 제대로 되였습니다.

○ 이젠 알만합니다.

△ 이번에는 ××동무가 어제 배운 본문의 내용을 이야기해보십시오.

○ 예, 어제는 제×과 《거리에서》를 배웠습니다.
(내용을 이야기한다.)

△ 내용을 잘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남의 말을 자기 말로 옮기는것이 잘 안됩니다. 8점밖에 안됩니다.
어느 동무가 다시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까?

○ 예,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 잘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하면 10점을 맞을만합니다.
그럼 숙제검열은 이만하고 새 본문을 공부하겠습니다. 교과서 ××폐지를 펼치십시오.
내가 먼저 천천히 읽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 선생님, 《천리마동상이 보입니다.》에서 《천리마》를 어떻게 발음합니까?

△ 《천리마》는 〔천리마〕나 〔천니마〕라고 발음하지 않고 〔철리마〕라고 발음합니다. 이렇게 발음해야 할 단어들이 또 어떤것이 있습니까?

○ 《근로자》, 《만리》, 《진리》와 같은 단어럭사

니다.

△ 예, 옳습니다. 이 단어들에서는 모두 자음 《ㄴ》와 《ㄹ》가 나란히 놓여있는데 이때에는 《ㄹ》가 《ㄴ》에 영향을 주기때문에 《ㄹ》로 발음합니다. 알겠습니까?

○ 알겠습니다.

△ 이번에는 따라읽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읽으면 동무들은 따라읽으십시오.

○ 예.

△ ××동무, 한번 큰소리로 읽으십시오. 다른 동무들은 잘 들으면서 발음이 정확한가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틀린데가 없습니까?

○ 다른건 다 맞는데 《물결을 헤치고》에서 《물결》을 〔물껼〕로 발음하지 않고 〔물결〕로 발음했습니다.

△ 예, 《물결》에서 《ㄹ》다음에 오는 순한소리 《ㄱ》는 된소리 《ㄲ》로 발음해야 합니다. 이렇게 발음해야 할 단어들이 또 어떤것이 있습니까?

○ 《물길, 물고기, 불길》 같은것이 있습니다.

△ 그렇습니다.

읽기는 그만하고 단어와 표현, 문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본문에서 모를것이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 선생님, 한가지 물어봐도 좋습니까?

— 선생님, 한가지 물어볼수 있습니까?

— 선생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 어서 물으십시오.

○ 토 《—에》와 《—에서》의 차이를 례를 들면서 다시 설명해주십시오.

△ 여격토 《—에》는 주로 움직임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때문에 《나는 학교에 갑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위격토 《—에서》는 주로 움직임의 장소를 나타냅니다: 때문에 《나는 도서관에서 공부합니다.》라고 말해야지 《나는 도서관에 공부합니다.》라고 하면 안됩니다.

○ 잘 알았습니다.

△ 또 물을것이 없습니까?

○ 없습니다.

△ 그럼 숙제를 내주겠습니다. …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 오늘은 이상 끝내겠습니다.

— 오늘 강의는 이만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 선생님 안녕히 가십시오.

*　　　*

△ 동무는 어느 대학에 다닙니까?

○ 김일성종합대학에 다닙니다.

△ 김일성종합대학은 언제 창립되였습니까?

○ 1946년 10월 1일에 창립되였습니다.

△ 그러니까 조선이 해방되여 1년이 좀 지나서 창립되였군요.

○ 그렇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해방직후 그 어렵고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는 원칙을 내세우시고 인민의 첫 종합대학을 세워주시였습니다.

△ 참으로 현명한 방침입니다.

김일성종합대학에는 어떤 학부들이 있습니까?

○ 사회과학학부들로서는 경제학부, 철학부, 력사

학부, 법학부, 조선어문학부, 외국어문학부가 있고 자연과학학부들로서는 물리학부, 수학력학부, 자동화학부, 원자력학부, 화학부, 생물학부, 지리학부, 지질학부들이 있습니다. 이밖에 예비과가 있고 연구소들과 박사원이 있습니다.

△ 동무는 어느 학부에서 공부합니까?

○ 조선어문학부에서 공부합니다.

△ 조선어문학부에는 어떤 학과들이 있습니까?

○ 조선어학과, 조선문학과, 고전문학과, 신문학과, 창작과가 있습니다.

△ 종합대학에는 어떤 교사들이 있습니까?

○ 본관과 9층으로 된 1호교사, 22층으로 된 2호교사가 있습니다. 그밖에 과학도서관, 자연박물관, 출판사를 비롯한 여러개의 현대적인 건물들과 기숙사들이 있습니다.

△ 본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 본관에는 《김일성동지혁명사상연구실》, 《김일성동지혁명사적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보내주신 선물관》이 정중히 꾸려져있습니다.

△ 1호교사와 2호교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 1호교사에는 자연과학학부들이 있고 2호교사에는 사회과학학부들이 있습니다.

△ 학생들의 학습조건과 생활조건은 어떻습니까?

○ 학생들은 어버이수령님의 극진한 배려로 모든 학습조건과 생활조건을 충분히 보장받으면서 무료로 공부하고있습니다. 모든 대학생들이 국가로부터 매달 장학금을 받고 철따라 교복과 학용품까지 공급받고있습니다.

△ 조선의 학생들은 참으로 세상에 부러운것 없이 행복하게 공부하고있습니다.

○ 그것이 모두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의 결과입니다.

△ 종합대학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동상을 언제 모셨습니까?

○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배려로 1968년 9월 9일 공화국창건 20돐에 즈음하여 모셨습니다.

△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을 높이 모시고있는 김일성종합대학이 길이 번영하기를 축원합니다.

○ 감사합니다.

〔보충〕

— 오늘 시간표를 좀 알려주십시오.
— 오늘은 세강의가 있습니다.
— 받아쓰기를 하겠습니다.
— 칠판에 나오십시오.
— 록음으로 듣기련습을 하겠습니다.
— 두동무씩 회화를 해보십시오.
— 따라읽으십시오.
— 혼자서 큰소리로 읽어보십시오.
— 연필을 깎습니다.
— 틀린 글자를 지우개로 지웁니다.
— 만년필에 잉크를 넣습니다.
— 원주필잉크가 다 떨어졌습니다.
— 자로 줄을 긋습니다.
— 붉은 연필로 밑줄을 칩니다.
— 걸그림이 잘 보입니다.
— 환등을 보면서 이야기하십시오.
— 문장을 분석합니다.
— 단어로 짧은 문장을 짓습니다.

9. 가 정

△ 동무의 집에는 식구가 몇명입니까?

○ 네명입니다.

△ 누구누구입니까?

○ 아버지와 어머니, 나와 녀동생이 있습니다.

△ 할아버지, 할머니는 안계십니까?

○ 계십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큰아버지네와 같이 사십니다.

△ 아버지는 나이가 어떻게 되였습니까?

○ 55(쉰다섯)살입니다.

△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 김종태전기기관차공장에서 작업반장으로 일합니다.

△ 어머니는 나이가 몇이십니까?

○ 53(쉰세)살입니다.

△ 어머니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 평양산원에서 의사로 일합니다.

△ 동무가 맏이(마지)입니까?

○ 아닙니다. 제 손우로 형님과 누님이 있습니다.

△ 형님과 누님은 함께 살지 않습니까?

○ 형님과 누님은 결혼을 하고 따로 삽니다.

△ 형님은 몇살입니까?

○ 30살입니다.

△ 형님은 무엇을 합니까?

○ 인민군대 군관입니다.

△ 형수는 몇살입니까?

○ 27살입니다.

△ 형수는 무엇을 합니까?

○ 유치원 교양원입니다.

△ 조카가 있습니까?

○ 2살짜리 녀조카가 하나 있습니다.

△ 누님은 몇살입니까?

○ 26살입니다.

△ 누님은 무엇을 합니까?

○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고등중학교 교원을 합니다.

△ 매부는 무엇을 합니까?

○ 농업대학을 졸업하고 협동농장에서 기사로 일합니다.

△ 누님네는 아이가 있습니까?

○ 아직 없습니다.

△ 녀동생은 몇살입니까?

○ 17살입니다.

△ 그럼 고등중학교 학생이겠군요.

○ 예, 지금 졸업반입니다.

△ 참 훌륭한 가정입니다. 동무의 가정에 더 큰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 고맙습니다.

* *

— 형님에게는 아들과 딸 오누이가 있습니다.

— 할아버지는 손자 셋, 손녀 둘을 두었습니다.

— 그의 남편은 로동자입니다.

— 그의 안해는 농장원입니다.

— 나에게는 오빠와 언니가 있습니다.

— 외할아버지는 지금도 정정하십니다.

— 외할머니는 지난 조국해방전쟁때 미제놈들의 폭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9. 가 정

△ 동무의 집에는 식구가 몇명입니까?

○ 네명입니다.

△ 누구누구입니까?

○ 아버지와 어머니, 나와 녀동생이 있습니다.

△ 할아버지, 할머니는 안계십니까?

○ 계십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큰아버지네와 같이 사십니다.

△ 아버지는 나이가 어떻게 되였습니까?

○ 55(쉰다섯)살입니다.

△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 김종태전기기관차공장에서 작업반장으로 일합니다.

△ 어머니는 나이가 몇이십니까?

○ 53(쉰세)살입니다.

△ 어머니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 평양산원에서 의사로 일합니다.

△ 동무가 맏이(마지)입니까?

○ 아닙니다. 제 손우로 형님과 누님이 있습니다.

△ 형님과 누님은 함께 살지 않습니까?

○ 형님과 누님은 결혼을 하고 따로 삽니다.

△ 형님은 몇살입니까?

○ 30살입니다.

△ 형님은 무엇을 합니까?

○ 인민군대 군관입니다.

△ 형수는 몇살입니까?

○ 27살입니다.

△ 형수는 무엇을 합니까?

○ 유치원 교양원입니다.

△ 조카가 있습니까?

○ 2살짜리 녀조카가 하나 있습니다.

△ 누님은 몇살입니까?

○ 26살입니다.

△ 누님은 무엇을 합니까?

○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고등중학교 교원을 합니다.

△ 매부는 무엇을 합니까?

○ 농업대학을 졸업하고 협동농장에서 기사로 일합니다.

△ 누님네는 아이가 있습니까?

○ 아직 없습니다.

△ 녀동생은 몇살입니까?

○ 17살입니다.

△ 그럼 고등중학교 학생이겠군요.

○ 예, 지금 졸업반입니다.

△ 참 훌륭한 가정입니다. 동무의 가정에 더 큰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 고맙습니다.

* *

— 형님에게는 아들과 딸 오누이가 있습니다.
— 할아버지는 손자 셋, 손녀 둘을 두었습니다.
— 그의 남편은 로동자입니다.
— 그의 안해는 농장원입니다.
— 나에게는 오빠와 언니가 있습니다.
— 외할아버지는 지금도 정정하십니다.
— 외할머니는 지난 조국해방전쟁때 미제놈들의 폭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 영철동무는 맏아들입니다.
— 영희동무는 둘째딸입니다.
— 어머니는 막내딸을 제일 사랑합니다.
— 삼촌네는 여섯식구입니다.
— 고모는 지난해에 결혼했습니다.
— 그에게는 누이동생이 있습니다.

*　　　　*

△ 동무의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 문수거리에 있습니다.

△ 방은 몇칸입니까?

○ 살림방이 세칸이고 전실과 부엌, 위생실이 있습니다.

△ 살림방은 어떻게 되여있습니까?

○ 웃방과 가운데방, 아래방으로 되여있습니다. 방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였습니다.

△ 웃방은 어떻게 꾸려져있습니까?

○ 웃방에는 책장과 높은 책상, 침대와 안락의자들이 있습니다.

△ 웃방은 누가 씁니까?

○ 아버지가 씁니다. 그리고 손님들도 이 방에서 맞이합니다.

△ 가운데방은 어떻게 꾸려져있습니까?

○ 가운데방에는 앉은책상과 텔레비죤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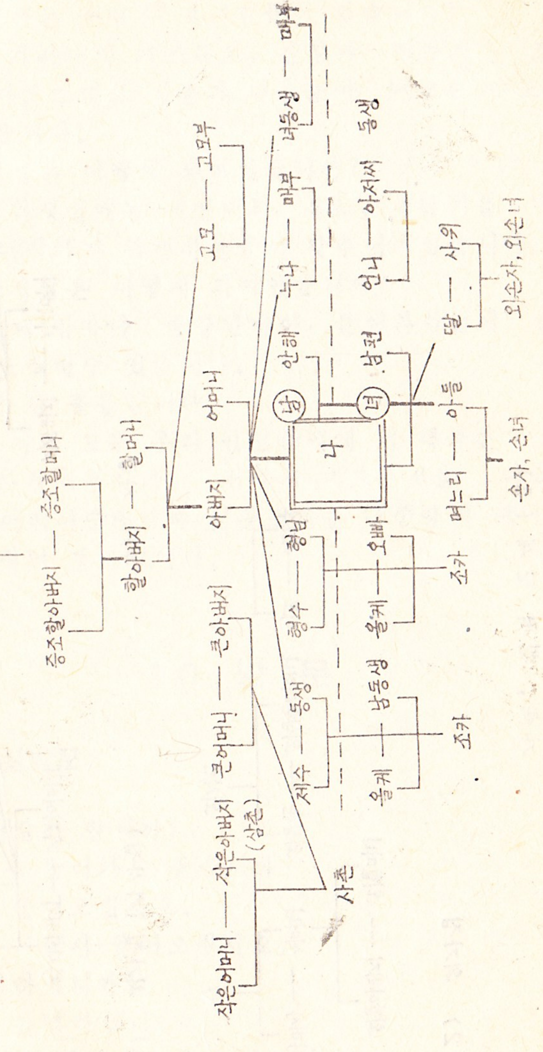
이 방은 우리 형제들이 씁니다.

△ 아래방은 어떻게 꾸려져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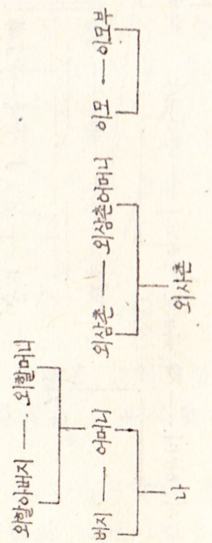
○ 아래방에는 옷장과 이불장, 재봉침이 있습니다. 이 방은 주로 어머니가 쓰고 식사도 여기서

1) 자기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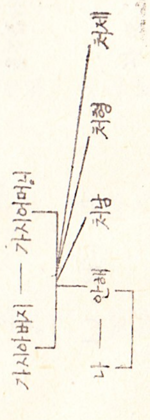
가족, 친척 관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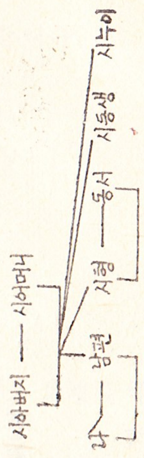
2) 외가집



3) 처가집 (가시집)



4) 시집



합니다.

△ 부엌에는 어떤 부엌세간들이 있습니까?

○ 가시대와 가스곤로, 찬장과 랭동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찬물과 더운물이 나오는 수도가 있습니다.

△ 위생실은 어떻게 되여있습니까?

○ 위생실에는 세면대와 욕조, 세탁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위생시설들이 갖추어져있습니다.

△ 난방시설은 어떻게 되여있습니까?

○ 매 방마다 중앙난방이 들어와있는데 알맞게 조절할수 있습니다.

△ 집이 참 훌륭합니다.

○ 이게 모두 우리 인민들에게 더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기 위해서 모든것을 다하시는 어버이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크나큰 은덕의 결과입니다.

10. 방 문

1) 호실방문

△ 들어갈만 합니까?

— 들어가도 좋습니까?

○ 들어오십시오.

— 어서 들어오십시오.

△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 여기가 김철수동무의 방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무슨 일로 찾아왔습니까?

— 예, 어떻게 오셨습니까?

△ 저는 철수동무와 같은 학급에서 공부하는데 그를 좀 만나려고 왔습니다.

○ 아, 그렇습니까? 여기 좀 앉으십시오.

△ 예, 고맙습니다.

— 예, 괜찮습니다.

○ 그런데 철수동무는 지금 없습니다. 책방에 갔습니다.

△ 나간지 오랩니까?

○ 한시간전에 나갔으니까 이젠 돌아올 때가 되였습니다.

△ 그럼 좀 기다리겠습니다.

○ 그렇게 하십시오.

심심하겠는데 여기 화보가 있습니다.

△ 고맙습니다. 공부하는데 방해를 끼쳐서 안됐습니다.

○ 일없습니다.

— 괜찮습니다.

2) 강좌실방문

△ 들어가도 좋습니까?

— 들어갈만 합니까?

○ 예, 어서 들어오십시오.

△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왔습니까?

△ 강독선생님을 만나려고 왔습니다.

○ ×××선생님말입니까?

△ 예.

○ 지금 도서관에 갔는데 좀 있으면 돌아올겝

니다.

△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 여기 앉으십시오. 그런데 무슨 일로 왔습니까?

△ 단편소설 《사랑의 품》을 배우고 《어린이들이 나라의 왕인 조선》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지도를 받고싶어서 왔습니다.

○ 그것 참 좋은 일입니다. 어서 봅시다.

△ 잘된것 같지 않습니다.

○ 일없습니다. 그렇게 자꾸 글을 지어보면 조선말학습에 아주 좋습니다.

△ 선생님의 시간을 빼앗아서 정말 미안합니다.

○ 미안할게 있습니까? 이런 학습문제라면 언제든지 찾아오십시오.

△ 예, 그럼 선생님이 보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두고 가십시오. 래일 강의가 끝난 다음 의견을 주겠습니다.

△ 그럼 돌아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안녕히 가십시오.

3) 관리원실방문

△ 계십니까?

○ 누구십니까?

△ 수고하십니다.

○ 어서오십시오. 무슨 일로 왔습니까?

△ 우리 방 쇠가 잘 열리지 않습니다.

○ 열쇠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 아닙니다. 틀림없이 우리 방 열쇠로 열었습니다.

○ 어디 가봅시다.

*　　　　*

△ 우리 방에 불이 오지 않습니다.

○ 언제부터 오지 않습니까?

△ 아침까지는 왔는데 저녁에 불을 켜보니 오지 않습니다.

○ 다른 방들은 다 옵니까?

△ 예, 다 옵니다.

○ 그럼 어디가 고장인지 같이 가봅시다.

*　　　　*

△ 삽과 마당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 창고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쓰려고 그럽니까?

△ 꽃밭도 만들고 마당청소도 하려고 그럽니다.

○ 그럼 곡괭이도 필요하겠군요.

△ 그것도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 있습니다. 모두 몇개면 되겠습니까?

△ 삽 5(다섯)자루와 곡괭이 1(한)개, 비자루 3(세)개면 되겠습니다.

○ 창고로 갑시다.

11. 텔레비죤

△ 오늘 텔레비죤방송순서를 압니까?

○ 예, 압니다.

△ 어떤 종목들이 있습니까?

— 무엇을 합니까?

○ 보도, 기록영화, 예술영화, 알아맞추기경연, 체육소식, 방송야회, 좌담회, 노래와 춤을 비롯하여 다채로운 종목들이 있습니다.

△ 보도는 몇시에 있습니까?

○ 저녁 7시와 9시에 있습니다.

△ 예술영화는 무엇을 돌립니까?

○ 《청춘의 심장》을 돌립니다.

△ 몇시부터 합니까?

○ 밤 9시 반부터 합니다.

△ 체육소식은 무엇이 있습니까?

○ 빙상관에서 하는 휘거와 혹케이경기를 실황중계합니다.

△ 그건 몇시부터 합니까?

○ 저녁 8시부터 합니다.

*　　　　*

△ 혹케이경기를 시작했습니까?

○ 아닙니다. 지금 두팀 선수들이 경기장에 들어오고있습니다.

△ 오늘은 어느 팀이 나옵니까?

○ 《압록강》팀과 《두만강》팀입니다.

△ 《압록강》팀은 어디를 차지했습니까?

○ 화면을 향해서 오른쪽을 차지했습니다. 붉은

줄이 간 운동복을 입은 선수들이 《압록강》팀입니다.

△ 어느 팀이 낫습니까?

○ 두팀이 비슷비슷합니다.

△ 심판들이 나옵니다. 주심은 누구입니까?

○ 국제심판원 김철복동무입니다.

△ 자,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 그럼 방송원의 해설을 들으면서 경기를 봅시다.

〔보충〕

— 텔레비존을 켭니다.
— 텔레비존을 끕니다.
— 화면이 너무 밝습니다.
— 화면이 좀 어둡습니다.
— 소리(록음)가 너무 큽니다.
— 소리(록음)가 좀 약합니다.
— 그림자(허상)가 많이 생깁니다.
— 안테나를 조절합니다.
— 안테나를 조절해봅시다.
— 색을 좀 조절해야겠습니다.
— 영상이 길어졌습니다. (짧아졌습니다.)
— 이 텔레비존은 진공관식입니다.
— 이 텔레비존은 반도체식입니다.
— 이것은 천연색텔레비존입니다.
— 이것은 흑색텔레비존입니다.

12. 상점에서

△ 화장품매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 1층에 있습니다.

△ 판매원동무, 치약과 세수비누를 한개씩 주십시오.

○ 어떤걸 드릴가요?

△ 인삼을 넣어서 만든것이 있습니까?

○ 예, 인삼치약과 인삼세수비누가 있습니다.

△ 그럼 그걸 주십시오.

○ ×원 ×전입니다.

△ (돈을 물고 물건을 받는다.)
수고하십시오.

○ 또 오세요.

*　　　*

△ 수고하십니다.

○ 어서 오세요.

△ 조선민요를 록음한 카세트가 있습니까?

○ 있습니다.

△ 카세트 한개에 노래가 몇곡 들어있습니까?

○ 한면에 6(여섯)곡씩 12(열두)곡이 들어있습니다.

△ 노래목록을 좀 볼수 없을가요?

○ 여기 있습니다.

△ 이 다섯가지를 한개씩 주십시오.

○ 예.

△ 한개에 얼마입니까?

○ ×원 ×전입니다.

△ 빈 카세트가 있습니까?

○ 예, 《만수대》표 카세트가 있습니다.

△ 그건 얼마입니까?

○ ×원 ×전입니다.

△ 3(세)개만 주십시오.

○ 그렇게 하세요.

△ 모두 얼마입니까?

○ ×원 ×전입니다.

△ (10원짜리 ×장을 내놓으며) 잔돈이 없어 미안합니다.

○ 괜찮습니다. 거스름돈을 받으세요.

△ 안녕히 계십시오.

○ 또 오세요.

— 또 오십시오.

* *

△ 넥타이를 어디서 팝니까?

○ 4층 옷매대에서 팝니다.

△ 판매원동무, 수고하십니다.

○ 어서 오세요.

△ 이 옷에 어울리는 넥타이를 하나 골라주십시오.

○ 제가 골라드리는것이 손님의 마음에 들겠는지요?

△ 넥타이를 다루는 판매원동무가 나보다야 낫겠지요.

○ 이가운데서 하나를 고르십시오.

△ 다 좋아보이는데…

○ 이게 어떻습니까?

△ 색갈도 좋고 무늬도 고상하고 괜찮은것 같습니다.

○ 그럼 이걸 드릴가요?

△ 그렇게 합시다.

봄가을에 맬수 있는 넥타이를 하나 더 부탁합니다.

○ 손님에게는 밝은 색이 어울릴것 같습니다.

△ 예, 밝은색 바탕에 큰 무늬가 있는것을 주십시오.

○ 이가운데서 마음드는것을 고르십시오.

△ 이게 제일 나은것 같은데…

○ 예, 제 생각에도 그게 제일 좋아보입니다.

△ 오늘 판매원동무덕분에 마음에 드는 넥타이를 사게 되여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 뭘요, 손님이 만족스럽다니 우리 판매원들도 기쁩니다.

△ 그럼 수고하십시오.

○ 안녕히 가세요.

〔보충〕

— 미안하지만, 여기 가까운데 백화점이 없습니까?

• 저 모퉁이를 돌아서 한 100메터 더 가면 백화점이 있습니다.

— 여기 어디 잡화상점이 없습니까?

• 저 큰 간판이 붙어있는 집이 잡화상점입니다.

— 이 백화점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문을 엽니까?

• 아침 10시부터 밤 9시까지 문을 엽니다.

— 어느날 쉽니까?

• 매주 화요일에 쉽니다.

— 40문짜리 구두를 하나 봅시다.

— 신어봐도 일없습니까?

— 밤색 외투천 한감만 주십시오.

— 겨울용 긴양말이 있습니까?

— 돈을 어디서 뭅니까?

13. 책방에서

△ 안녕하십니까?

○ 어서 오세요.

△ 요새 어떤 책들이 새로 들어왔습니까?

○ 《김일성저작집》을 비롯한 위대한 수령님의 문헌집들과 여러가지 문예서적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 《김일성저작집》은 몇권까지 나왔습니까?

○ 25권까지 나왔습니다.

△ 25권에는 어느때까지의 로작이 수록되여있습니까?

○ 1970년 1월부터 1970년 12월까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표하신 고전적로작들이 수록되여있습니다.

△ 21권부터 25권까지 두책씩 주십시오.

○ 20권까지는 샀습니까?

△ 예, 샀습니다.
문예서적은 무엇이 있습니까?

○ 총서 《불멸의 력사》중에서 장편소설 《압록강》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소설책, 시집, 노래집들이 들어왔습니다.

△ 《압록강》은 무엇을 내용으로 하고있습니까?

○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력사적인 보천보전투를 기본 내용으로 하고있습니다.

△ 그 책도 두권 주십시오.

○ 그렇게 하지요. 손님은 다 두권씩 요구하시는군요.

△ 같이 있는 동무에게 한권씩 주려고 그럽니다.

○ 그래요?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책을 사다주는것

이 제일 기쁜 일이지요.

△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 나온 책을 먼저 사는 사람이 두권씩 사기로 약속했답니다.

○ 참 좋은 일입니다.
더 요구되는 책이 없습니까?

△ 기술도서는 어떤것이 있습니까?

○ 전자계산기에 관한 책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 어디 좀 봅시다.

○ 손님은 전자계산기에 대해서도 공부합니까?

△ 아닙니다. 제 동생이 수학을 전공하는데 하나 사다줄가 해서 그럽니다.

○ 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참고서로 될겁니다.

△ 이 책을 한권 주십시오.

○ 예.
《현대조선말사전》은 샀습니까?

△ 예, 그건 벌써 샀습니다.

○ 더 요구되는 책이 없습니까?

△ 오늘은 이만하면 만족합니다.

○ 앞으로도 자주 오십시오.

△ 고맙습니다. 《책은 말없는 스승》이라고 했는데 자주 오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 안녕히 가십시오. 또 오세요.

〔보충〕

— 제가 부탁했던 책이 들어왔습니까?
— 《새책안내》에 소개된 책들이 다 있습니까?
— 신문에 소개된 책을 예약할수 있습니까?
— 새로 나온 노래집이 있습니까?

— 단편소설집이나 시집이 있으면 좀 봅시다.
— 장편소설은 어떤것이 있습니까?
— 어린이그림책을 몇권 주십시오.
— 책값이 얼마입니까?
— 여기서 교과서도 팝니까?
— 여기서 교과서는 팔지 않습니까?
— 외국문서적은 어디서 팝니까?
— 외국문서적은 어디 가야 살수 있습니까?
— 이 책은 어느 출판사에서 낸것입니까?
— 이 책은 언제 출판한것입니까?
— 이 책은 초판입니까? 재판입니까?
— 이 책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 이 책은 누가 썼습니까?

*　　　*

저자	사전
편집자	주석사전
심사자	대역사전
정치서적	백과사전
사회과학서적	부문사전
자연과학서적	화첩
기술도서	지도첩
문예서적	편람
아동도서	참고서
교육도서	표지
겉표지	발행
속표지	초판
장정	재판
삽화	증보판
출판사	국판

인쇄소	분고판
인쇄	사륙판
	사륙배판

14. 식당에서

1) 기숙사식당에서

△ 박동무, 저녁먹으러 갑시다.
　○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되였습니까?
△ 시간가는줄도 모르는걸 보니 무슨 재미있는 소설이라도 읽는 모양입니다.
　○ 아닙니다, 숙제문제를 풀다가 걸려서 좀 애를 먹었습니다.
△ 그래 이젠 다 풀었습니까?
　○ 예, 다 됐습니다.
△ 그럼 식당으로 갑시다.
　○ 그렇게 합시다.

*　　　*

△ 오늘 저녁에는 무얼 할가요?
　○ 뭘 시원한걸 먹었으면 좋겠는데.
△ 나도 탁구를 좀 쳤더니 시원한것이 생각납니다.
　그럼 찬국수를 합시다.
　○ 그게 좋겠습니다.
△ 아주머니(어머니), 시원한 국수 두그릇만 주십시오.
　○ 도마도화채와 얼음보숭이도 함께 주십시오.
△ 한그릇은 고추가루를 치지 말아주십시오.
　○ 국수야 매운 맛에 먹는데.

△ 난 후추는 먹어도 고추는 먹지 않습니다.

○ 겨자는 어떻습니까?

△ 겨자도 조금 치는것이 국수맛을 돋구는데 괜찮지요.

○ 자, 국수가 나옵니다.

△ 오늘 국수는 고명이 굉장하구만요.

○ 정말 먹음직스럽습니다.

△ 국수꾸미도 대단합니다.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에 닭알까지 있습니다.

○ 오이, 무우, 배추에 배까지 들어갔습니다.

△ 국수에는 식초를 좀 치는것이 좋습니다.

○ 나는 신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대신 매운것을 좋아합니다.

△ 여기 고추가루가 있습니다.

○ 국수에는 고추가 들어가야 빛갈도 곱고 맛도 더 돋군답니다.

△ 국물이 참 구수하군요.

○ 국수가 어쩌나 질긴지 끊어지지 않습니다.

△ 고명이 참 별맛입니다.

○ 오늘 국수는 무엇이나 나무랄데 없이 맛있습니다.

△ 자, 이젠 도마도화채를 먹읍시다.

○ 국수를 먹었더니 그걸 먹을 배가 없습니다.

△ 그래도 조금 드십시오. 이건 소화에도 좋습니다.

○ 어디 맛이나 봅시다.

△ 맛을 보면 다 먹고싶은 생각이 들겁니다.

○ 정말 그렇습니다. 신선한게 참 좋습니다.

△ 얼음보숭이는 남기겠습니까?

○ 웬걸요, 그거야 입가심도 할겸 먹어야지요.

△ 오늘 저녁은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 예, 아주 만족합니다.

2) 거리식당에서

△ 박동무, 거리에 나왔던김에 어느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는것이 어떻습니까?

○ 그게 좋겠습니다.

△ 어디로 갈가요?

○ 옥류관, 모란각, 전승각, 칠성각에는 몇번씩 가봤으니까 오늘은 청류관에 가봅시다.

△ 나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 빙상관에서 호케이구경을 하고 청류관에서 점심을 먹는것도 괜찮지요.

△ 사람들이 굉장히 많군요.

○ 일요일인데다가 방금 경기가 끝났으니까 그럴수밖에 없지요.

*　　　　*

△ 청류관에서는 어떤 음식들을 합니까?

○ 밥, 떡, 빵, 지짐, 국수와 같은 주식으로 먹는 음식들과 이름난 신선로를 비롯한 조선료리들, 여러가지 청량음료를 합니다.

△ 조선료리에는 어떤것들이 있습니까?

○ 신선로, 전골, 여러가지 고기, 물고기, 버섯, 남새, 나물 볶음들, 고기, 물고기 튀기와 구이들, 갖가지 졸임과 잡채, 생채를 비롯하여 세자면 끝이 없습니다.

△ 조선떡에는 어떤것들이 있습니까?

○ 찰떡, 기지떡, 설기떡, 개피떡, 송편, 경단을 비롯하여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 조선음료에는 어떤것이 있습니까?

○ 식혜, 수정과, 화채, 인삼차, 얼음보숭이와 같은것들이 있습니다.

△ 김치에는 어떤것이 있습니까?

○ 한겨울동안 오래 두고 먹는 김장김치와 보쌈김치, 나박김치, 동치미, 깍두기를 비롯하여 수십가지가 있습니다.

△ 말만 들어도 군침이 돌고 배가 부릅니다.

○ 오늘은 무얼 할가요?

△ 신선로가 어떻습니까?

○ 괜찮지요.

* *

△ 접대원동무, 신선로를 부탁합니다.

○ 포도주도 한병 갖다주십시오.

△ 신선로를 먹어본 일이 있습니까?

○ 예, 옥류관에서 몇번 먹어봤습니다.

△ 나는 소문만 들었지 아직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 그럼 내가 좀 설명을 해드리지요.

△ 그렇게 해주십시오.

△ 그릇이 참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 이 변두리에 붙어있는것이 음식을 넣는 그릇이고 복판에 있는것이 불을 피우는 불통입니다.

△ 그럼 불을 피우면서 계속 더운 음식을 먹을수 있겠군요.

○ 예, 이 그릇도 신선로라고 하고 또 이 그릇에 끓여먹는 음식도 신선로라고 합니다.

△ 신선로라는것은 무슨 뜻입니까?

○ 신선이란 전설에서 무병장수하고 아주 큰 힘을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로부터 이

그릇에 넣어 끓인 음식을 먹으면 무병장수한다고 하여 신선로라고 부릅니다.

△ 그 말을 듣고보니 입맛이 더 당깁니다.

○ 여기에 들어가는 음식감들이 또한 굉장합니다.

△ 어떤것들입니까?

○ 소고기, 닭고기, 닭알, 해삼, 전복, 새우, 버섯, 은행, 잣알, 호두, 밤, 홍당무우, 둥글파, 파, 마늘, 고추, 후추, 깨…

△ 그러니까 말그대로 산해진미가 다 들어가는군요.

○ 그렇습니다.

자, 이젠 다 끓은것 같습니다. 잡숴보십시오.

△ 예, 같이 듭시다.

참 별맛입니다.

○ 한번 맛을 들이면 계속 신선로생각만 난답니다.

△ 정말 그렇겠습니다.

이 둥글둥글한것은 고기 같은데…

○ 그게 완자라는것입니다. 여기에는 고기도 그냥 저며서 넣은것과 보드랍게 갈아서 완자를 빚어 넣은것이 있습니다.

△ 이건 무엇입니까?

○ 해삼입니다. 바다의 인삼이라고 하여 해삼이라고 한답니다.

△ 산에는 산삼, 바다에는 해삼. …

○ 맞았습니다.

△ 오늘 난생처음 이런 맛있고 진귀한 음식을 먹어봅니다.

○ 그렇다니 나도 기쁩니다.

15. 양복점에서

△ 안녕하십니까?

　○ 어서 오십시오.

△ 옷을 지을수 있습니까?

　○ 예, 있구말구요. 천은 가지고 왔습니까?

△ 그냥 왔습니다.

　○ 그럼 이 천견본책을 보면서 마음에 드는것을 고르십시오.

△ 고맙습니다.

비날론 70%(프로), 모 30%가 섞인 이 천이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마음에 듭니다.

△ 색갈도 무늬도 괜찮은것 같습니다.

　○ 예, 요즘은 이런 천이 류행이랍니다.

△ 그럼 이걸로 양복 한벌 지어주십시오.

　○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어떤 모양으로 하겠습니까?

△ 홑섶으로 해주십시오.

　○ 단추는 몇알짜리로 하겠습니까?

△ 세알짜리로 하겠습니다.

　○ 앞섶은 곧은형으로 하겠습니까?

△ 아닙니다. 둥근형으로 해주십시오.

　○ 주머니는 안에다 달겠습니까?

△ 밖에 달아주십시오.

　○ 뒤는 터쳐도 되겠습니까?

△ 물론입니다.

　○ 안은 다 넣겠습니까?

△ 앞과 등, 소매에만 넣어주십시오.

　○ 그럼 몸을 잽시다.

　바지가랭이는 얼마로 할가요?

△ 보통으로 해주십시오.

　○ 이 표를 건사하십시오.

△ 며칠이면 됩니까?

　○ 사흘후에 오십시오. 그날 시침을 합시다.

△ 시침을 한 다음 인차 찾을수 있습니까?

　○ 그 다음날에 오면 됩니다.

△ 그럼 수고하시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안녕히 가십시오.

*　　*

△ 수고하십니다. 오늘 시침하는 날이 돼서 왔습니다.

　○ 어서 오십시오. 표를 좀 봅시다.

△ 여기 있습니다.

　○ 잠간 기다려주십시오.

　이 천이 맞습니까?

△ 예, 옳습니다.

　○ 자 입어봅시다. 품은 꼭 맞는것 같습니다.

△ 좀 너르지 않습니까?

　○ 아닙니다. 이제 단추를 채우면 일없습니다.

△ 소매는 좀 긴것 같습니다.

　○ 얼마쯤 줄일가요?

△ 한 5미리정도 줄여주십시오.

　○ 바지 입은게 편안합니까?

△ 예, 편안합니다.

　○ 허리춤은 어떻습니까?

△ 좀 조이는것 같습니다.

　○ 바지길이는 이만하면 되겠습니까?

△ 예, 그만하면 되겠습니다.

○ 자, 됐습니다. 래일 찾으러 오면 되겠습니다.

△ 수고가 많았습니다.

○ 수고는 무슨 수고겠습니까?

△ 그럼 래일 오겠습니다.

○ 예, 안녕히 가십시오.

〔보충〕

— 외투를 지울수 있습니까?
— 옷을 좀 고치려고 합니다.
— 여기서 옷을 다릴수 있습니까?
— 조선치마저고리는 어디서 만듭니까?
— 봄가을외투를 맡기려고 합니다.
— 겉감만 가지고 왔습니다.
— 안감과 심지감이 없습니까?

*　　*

— 옷을 입다.(벗다)
— 단추를 채우다.(벗기다)
— 넥타이를 매다.(풀다)
— 허리띠를 띠다.(풀다)
— 목도리를 두르다.(벗다)
— 모자(머리수건)를 쓰다.(벗다)
— 단추가 떨어지다.
— 단추를 달다.
— 옷을 깁다.
— 바느질(을) 하다.
— 바늘에 실을 꿰다.
— 바지에 줄을 세우다.
— 치마에 주름을 잡다.

16. 사진관에서

△ 박동무, 나하구 같이 사진 한장 찍읍시다.

○ 갑자기 사진은 무슨 사진입니까?

△ 대학입학을 기념해서 한장 찍자는겁니다.

○ 그것 참 좋은 생각입니다.

*　　*

△ 안녕하십니까? 사진을 찍을수 있습니까?

○ 예, 어서 오십시오.

△ 천연색사진을 찍습니까?

○ 예, 찍구말구요.

△ 종합대학을 배경으로 넣을수 있습니까?

○ 있지 않구요.

△ 그럼 멋있게 한장 찍어주십시오.

○ 두분이 같이 찍겠습니까?

△ 예, 둘이 같이 한번 찍고 또 독사진으로도 찍겠습니다.

○ 그럼 한분은 걸상에 앉고 한분은 그뒤에 서주십시오.

△ 온몸이 다 나오게 해주십시오.

○ 예, 념려마십시오.

— 책을 오른손에 들어주십시오.
— 뒤에 선분이 몸을 너무 숙였습니다.
— 머리를 왼쪽으로 약간 돌려주십시오.
— 앞에 앉은분은 고개를 조금 쳐드십시오.
— 자, 찍겠습니다. 됐습니다.

△ 사진에다 《대학입학을 기념하여》라는 글과 오늘 날자를 써넣어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합시다.
△ 독사진도 한장씩 찍어주십시오.
○ 배경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 같은것으로 해주십시오.
○ 규격은 얼마로 하겠습니까?
△ 둘이 함께 찍은것의 절반으로 해주십시오.
○ 그럼 두분이 함께 찍은것은 6×4절로 하고 독사진은 그 절반으로 합니다.
△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며칠이면 찾을수 있습니까?
○ 닷새후에 오십시오.
△ 증명서사진을 찍을수 있습니까?
○ 예, 찍습니다.
△ 그럼 그것도 마저 찍어주십시오.
○ 어디에 쓸것입니까?
△ 학생증(졸업증, 려권, 외국인증)에 쓸것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두분이 함께 앉으십시오.
— 앞을 똑바로 보십시오.
— 자, 찍겠습니다. 됐습니다.
△ 증명서사진은 언제면 됩니까?
○ 그건 래일 와도 됩니다.
△ 오늘 수고가 많았습니다.
○ 괜찮습니다.
△ 안녕히 계십시오.
○ 안녕히 가십시오.

17. 우편국에서

1) 전보

△ 수고하십니다.
○ 어서 오세요.
△ 전보종이 한장 주십시오.
○ 여기 있습니다.
△ 미안하지만 전보 쓰는 법을 좀 대주십시오.
○ 맨우에 받을 사람의 주소와 이름을 쓰고 가운데에 내용을 쓰고 맨아래에 보내는 사람의 주소와 이름을 쓰면 됩니다.
△ 보내는 사람의 주소와 이름을 따로 써야 합니까?
○ 예, 그건 우편국에서 기록해두고 령수증을 떼드리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 내용에는 이름만 써도 괜찮겠지요?
○ 예, 받을 사람이 보내는 사람을 잘 아는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 한칸에 한자씩 씁니까?
○예, 내용을 될수록 간단히 써주세요.
△ (전보를 다 쓰고)
제대로 됐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 《16일 12시 차로 혜산에 도착. 리영철》이라고 썼는데 더 줄여서 《16일 12시 혜산도착.리영철》이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 예, 그렇게 해도 내용이 뚜렷하군요.
○ 그리고 전보문은 띄여쓰기를 하지 않는답니다.
△ 아, 그렇습니까? 그럼 그렇게 고치겠습니다. …
자, 이젠 됐습니까?

○ 예, 잘됐습니다.
△ 모두 얼마입니까?
○ ××전입니다.
령수증을 받으십시오.
△ 언제면 가닿을수 있습니까?
○ 3시간후이면 가닿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안녕히 가세요.

* *

△ 수고하십니다.
○ 어서 오세요.
△ 외국문전보를 어디서 칠수 있습니까?
○ 왼쪽 10호구로 가십시오.
△ 고맙습니다.

* *

△ 여기서 외국문전보를 접수합니까?
○ 예, 어서 오십시오.
△ 전보종이 한장 주십시오.
○ 어느 어종으로 치겠습니까?
△ 영문입니다.
○ 그럼 여기다 정자로 똑똑히 써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
이렇게 하면 됐습니까?
○ 됐습니다.
△ 지급으로 보내야겠는데요.
○ 예, 그렇게 합시다.
△ 안녕히 계십시오.
○ 안녕히 가십시오.

2) 전화

① 시내전화

△ 미안하지만 전화를 좀 쓸수 있습니까?
○ 예, 어서 쓰십시오.
△ (번호판을 돌리고)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교환입니다.
△ 평양항공역이 몇번입니까?
○ ×××××번입니다.
△ 감사합니다.

* *

△ (다시 번호판을 돌리고)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평양항공역입니다.
△ 모스크바—평양행 비행기가 제 시간에 도착합니까?
○ 예, 정시에 도착합니다.
△ 베이징으로 가는 비행기가 오늘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 몇시에 떠납니까?
○ 오후 5시에 출발합니다.
△ 모스크바로 가는 비행기는 어느날 있습니까?
○ 화요일과 목요일에 있습니다.
△ 잘 알았습니다. 친절히 알려주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안녕히 계십시오.

* *

② 시외전화

△ 수고하십니다.
○ 어서 오세요.

△ 시외전화를 걸수 있습니까?
　○ 어디에 걸겠습니까?
△ 혜산○○려관에 걸려고 합니다.
　○ 잠간 기다려주세요. …
　　손님, 혜산○○려관이 나왔습니다.
　　5번 전화를 사용하십시오.
△ 감사합니다.
　여보십시오, 혜산○○려관입니까?
　○ 그렇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여긴 평양입니다. 미안하지만 종합대학에서 혁명전적지답사를 간 학생들이 그 려관에 들지 않았습니까?
　○ 예, 방금 백두산지구를 답사하고 돌아왔습니다.
△ 그럼 리영철동무를 바꿔줄수 없겠습니까?
　○ 그렇게 하지요. 이제 전화를 그 동무가 들어있는 방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 *

　○ 여보십시오. 리영철이 전화받습니다.
△ 영철동무입니까? 나 김철수입니다.
　○ 아, 그렇습니까? 그새 잘 있습니까?
△ 잘 있습니다. 그래 답사는 성과적으로 진행되고있습니까?
　○ 예, 오늘 오전까지 백두산지구답사를 마치고 방금 혜산에 도착했습니다.
△ 계획대로 되는구만요. 모두들 건강하겠지요?
　○ 예, 다 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전화를 합니까?

△ 기쁜 소식을 한가지 전할것이 있습니다.
　○ 무엇인데요?
△ 동무가 쓴 시가 1등으로 당선되였습니다.
　○ 그렇습니까? 변변치 못한것인데…
△ 무슨 말씀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감사합니다. 다 선생님들과 동무들이 도와준 덕분입니다.
△ 이제 대학에 돌아오면 창작품발표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출연할 준비를 잘해가지고 오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 그럼 마지막까지 건강한 몸으로 답사를 잘하고 오십시오.
　○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 안녕히 계십시오.
　○ 안녕히 계십시오.

* *

△ 전화가 끝났습니다.
　○ 한통화입니다.
△ 얼마입니까?
　○ ×원 ×전입니다.
△ 여기 있습니다. 수고하십시오.
　○ 안녕히 가세요.

3) 편지

△ 미안하지만 여기 편지통이 어디에 있습니까?
　○ 길건너 저 5층집 현관문옆에 있습니다.
△ 아, 저 하늘색통말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고맙습니다.

○ 괜찮습니다.

* *

△ 이 편지를 등기로 부치려고 합니다.
— 등기편지를 부치려고 합니다.

○ 40전을 내십시오. …
이 우표를 봉투 오른쪽 우에 붙이십시오.

△ 여기다 붙이면 됩니까?

○ 예.
령수증을 받으십시오.

△ 항공우편은 어디서 받습니까?

○ 8호구에서 받습니다.

△ 항공우편에 쓸 봉투와 우표를 한장씩 주십시오.

○ 여기 있습니다.

* *

※ 편지주소 쓰는 법

평양시 대성구역 금성거리 **김일성종합대학**
제2호교사 조선어문학부 조선어학과 제3학년
박송이동무 앞

평양시 중구역 창광거리 52—4호동 3현관
7층 5호 최금철 앞

18. 병원에서

△ 얼굴색이 좋지 않은걸 보니 어디 편치 않은것 같습니다.

○ 어제부터 기침이 나면서 머리가 아픕니다.

△ 감기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 그런것 같습니다.

△ 그런데 왜 그러고있습니까? 병원에 가서 진찰도 받고 약도 써야지요.

○ 뭐 그러다가 낫겠지요.

△ 아닙니다. 감기도 심하면 다른 병으로 넘어갈수 있습니다. 공연히 고생하지 말고 어서 병원에 가보십시오.

○ 고맙습니다. 약이나 먹고 견디여보려고 했는데 동무가 걱정하니 병원에 가야겠습니다.

* *

△ 미안하지만 접수를 어디서 합니까?

○ 저쪽 접수과에서 합니다.

△ 수고하십니다.

○ 어서 오십시오. 어떻게 오셨습니까?

△ 접수를 하려고 합니다.

○ 병원에 처음 오십니까?

△ 예, 처음입니다.

○ 그럼 병력서를 새로 작성해야겠습니다.(이름, 나이, 직장, 주소 등을 물어본다)
어느 과에 가시겠습니까?

△ 감기에 걸린것 같은데…

○ 그럼 내과에 가십시오. 2층에 있습니다. 이제

곧 병력서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　　　*

△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 여기 앉으십시오. 어디가 아픕니까?
△ 기침이 나면서 머리가 아픕니다.
　○ 어디 좀 봅시다. 웃도리를 벗으십시오.
　(청진기를 대면서) 숨을 크게 쉬십시오.
　입안을 봅시다.
　언제부터 아팠습니까?
△ 어제 아침부터 기침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 그런데 왜 인제야 왔습니까?
△ 인차 일없을줄 알았습니다.
　○ 감기도 제때에 치료받지 않으면 기관지염이나 폐염으로 넘어갈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몸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제때에 오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 (처방전을 주면서) 감기약과 기침약인데 약국에 가서 타십시오. 제 시간에 꼭꼭 잡숫고 땀을 내십시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주사실에 가서 주사를 맞으십시오.
△ 알겠습니다.
　○ 입맛이 없더라도 식사를 많이 하십시오. 옛날부터 《감기는 밥상머리에서 내려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 예, 고맙습니다.
　○ 약을 써보고 낫지 않으면 또 오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안녕히 가십시오.

*　　　*

△ 이 약은 어떻게 먹습니까?
　○ 알약은 한번에 두알씩 하루 세번 잡수십시오. 물약은 한번에 한 눈금씩 기침이 나올 때마다 마시십시오.
△ 잘 알았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안녕히 가십시오.

〔보충〕

— 열이 나면서 몸이 떨립니다.
— 맥이 없고 식은땀이 납니다.
— 배(위)가 아픕니다.
— 속이 메슥메슥하고 토할것 같습니다.
— 머리가 아프고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 달리기를 하다가 발목을 삐였습니다.
— 축구를 하다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 넘어져서 머리를 상했습니다.
— 이발이 몹시 쑵니다.

*　　　*

— 체온(혈압, 맥박)을 재다.
— 렌트겐투시를 하다.
— 촬영을 하다.
— 피(위액)검사를 하다.
— 주사를 놓다(맞다).
— 약을 바르다.
— 붕대를 감다(풀다).
— 물리치료를 하다.

— 수술을 하다.

△ 병원, 의료일군, 의료 기구와 관련한 어휘

적십자병원
대학병원
구강병원
피부병원
산원
진료소
외과
내과
안과
구강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소아과
동의과
구급과
병력서
처방전
진단서
의사
준의
간호원
간병원
약제사
주사기
주사바늘
침
체온계
혈압계
청진기
렌트겐
수술실
수술대
수술칼

△ 병이름

감기
폐염
기관지염
편도선염
설사
소화불량
위병
위경련
위궤양
위처지기
충수염
간염
심장병
고혈압병
뇌출혈
빈혈증
관절염
신경통
신경쇠약
피부병
골절
타박상

출혈
화상
동상
눈병
귀병
코병
이앓이
치담

△ 약이름

알약
가루약
물약
주사약
보약
예방약
감기약
설사약
설사멎는약
열내림약
피멎는약
소독약
빨간약
옥도정기
고약
페니실린
스트렙토미찡(마이싱)
포도당
눈약
붕대
약솜
반창고

19. 정거장과 비행장에서

1) 정거장에서

△ 미안하지만 렬차시간을 어디서 알수 있습니까?
  ○ 저기 물음칸이 있습니다.

△ 안내원동무, 청진쪽으로 가는 렬차가 하루에 몇번 있습니까?
  ○ ×번 있습니다.

△ 급행은 몇시에 있습니까?
  ○ 밤 ×시 ×분에 있습니다.

△ 낮에 떠나는것은 없습니까?
  ○ 낮에 떠나는것은 준급행입니다.

△ 급행차에 침대가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 식당차도 있습니까?

○ 예.

△ 차표를 여기서 주문받습니까?

○ 아닙니다. 차표주문은 2층에서 받습니다.

△ 친절히 가르쳐주어서 고맙습니다.

○ 안녕히 가세요.

* *

△ 차표를 주문할수 있습니까?

○ 예, 어디 가는겁니까?

△ 급행차로 청진에 가자고 그럽니다.

○ 한장이면 됩니까?

△ 상급침대표 녀장을 한칸에다 주십시오.

○ 렬차가 떠나기 한시간전에 와서 표를 받으십시오.

* *

△ 방송에서 청진쪽으로 가는 손님들은 차표를 찍고 플래트홈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 자, 그럼 우리도 천천히 나갑시다.

△ 잃은 짐이 없는지 잘 보십시오.

○ 이쪽 1호구로 나갑시다.

* *

△ 렬차원동무, 상급침대 두번째 렬차가 어느것입니까?

○ 몇호실입니까?

△ 3호실입니다.

○ 차표를 저에게 맡기고 이쪽에서 세번째 칸에 가면 됩니다.

△ 고맙습니다.

○ 그럼 즐거운 려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2) 비행장에서

△ 평양에서 모스크바까지 가는 비행기가 한주일에 몇번 있습니까?

○ 두번 있습니다.

△ 모스크바에서 평양까지 오는 비행기도 같습니까?

○ 예, 역시 두번 옵니다.

△ 어느날 떠나고 어느날 옵니까?

○ 화요일과 목요일에 떠나고 월요일과 수요일에 옵니다.

△ 평양에서 모스크바까지 몇시간 걸립니까?

○ 비행기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10시간 걸립니다.

△ 화요일에 떠나는 비행기표를 주문할수 있습니까?

○ 그건 벌써 다 나갔습니다.

△ 그럼 목요일에 떠나는 비행기표는 있습니까?

○ 예, 몇장이 필요합니까?

△ 두장이면 됩니다.

○ 려권과 사증 수속은 다 했습니까?

△ 래일 하겠습니다.

○ 위생통과검열은 받았습니까?

△ 예, 받았습니다.

○ 그럼, 주소와 이름을 써두고 가십시오. 비행기표는 보내드리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안녕히 가세요.

*　　*

△ 세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 2층에 있습니다.
△ 세관수속을 하려고 합니다.
○ 비행기표를 샀습니까?
△ 예, 샀습니다.
○ 그럼 여기(세관증서)에 내용을 써주십시오.

*　　*

△ 방송으로 비행기에 오르라고 알려줍니다.
○ 그럼 나갑시다.
△ 우리가 탈 비행기가 어느것입니까?
○ 저 짐을 싣고있는것입니다.
△ 승강대가 벌써 설치되였습니다.
○ 자, 오릅시다.

*　　*

△ (안내원) 손님 여러분, 우리가 탄 평양발 모스크바행 비행기는 이제 5분후이면 리륙하게 됩니다. 모두 담배를 피우지 말고 안전띠를 띠여주십시오.
○ 안내원동무, 멀미약이 좀 없습니까?
△ 여기 있습니다. 껌과 알사탕도 있습니다.
○ 고맙습니다.
△ 비행기는 활주로에 들어섰습니다.
○ 어느새 리륙하여 수평으로 날고있군요.
△ 손님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지금 고도 1만메터에서 정상으로 날고있습니다. 유쾌하게 려행하기 바랍니다.

○ 이젠 우리도 안전띠를 풀고 흥겨운 려행을 합시다.

20. 려 행

△ 몇시차로 떠납니까?
○ 오후 4시차입니다.
△ 차표는 받았습니까?
○ 어제 신청했으니까 이제 역에 나가서 받으면 됩니다.
△ 일행이 몇명입니까?
○ 12명입니다.
△ 많구만요.
○ 예, 그래서 심심치 않게 되였습니다.
△ 짐은 다 꾸렸습니까?
○ 다 꾸렸습니다.
△ 짐이 많지 않습니까?
○ 많지 않습니다. 트렁크 한개와 구럭이 두개입니다.
△ 그럼 함께 정거장에 나갑시다. 제가 바래워드리겠습니다.
○ 바쁘신데 뭘 역에까지 나가겠습니까?
△ 괜찮습니다. 짐을 하나 주십시오.
○ 무겁지 않아서 일없습니다.
△ 그러지 말고 하나 주십시오.
○ 이거 정말 미안합니다.

*　　*

△ 5분전입니다. 이젠 차에 오르십시오.
○ 예.

△ 어린동무들을 잘 돌봐주십시오.

○ 념려마십시오.

△ 거기는 여기보다 날씨가 찬데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예, 너무 근심마십시오.

△ 도착하면 인차 전보를 치고 편지도 자주 하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뭘 부탁할것이 없습니까?

○ 특별한것이 없습니다. 우리 방의 화분을 부탁합니다.

△ 그건 걱정마십시오.

○ 다른것이 없습니다.

△ 그럼 건강한 몸으로 즐거운 려행을 하고 돌아오기 바랍니다.

○ 고맙습니다.

△ 안녕히 가십시오.

○ 안녕히 계십시오.

△ 차창을 좀 열어놓읍시다.

○ 연기가 들어올가봐 닫았는데요.

△ 전기기관차가 끄는데 연기는 무슨 연기입니까?

○ 그렇습니까? 그런걸 난 모르고…

△ 어째 기분이 좋은것 같지 않습니다.

○ 나는 차멀미를 심하게 합니다.

△ 나한테 좋은 멀미약이 있습니다.

○ 나한테도 있습니다.

△ 그래도 이걸 한번 써보십시오.

○ 고맙습니다.

△ 그리고 바람을 쏘이면서 좀 거니십시오.

○ 움직이면 토할것 같습니다.

△ 가만히 앉아있으면 더합니다.

○ 이제 진정되는데 복도에 좀 나가봅시다.

△ 렬차는 평양을 벗어나고있습니다.

○ 종합대학 2호교사와 텔레비죤탑이 멀리 바라보입니다.

△ 평양교외의 농촌에 들어섰습니다.

○ 벼와 강냉이가 참 잘됐습니다.

△ 저 등성이의 과수원을 보십시오.

○ 벌써 복숭아를 따는구만요.

△ 오래지 않아 올사과와 배도 따게 됩니다.

○ 산과 들을 바라보니 정말 흐뭇합니다.

△ 그것보십시오. 지금도 멀미가 납니까?

○ 이젠 일없습니다.

*　　　*

△ 자, 그만 자고 일어나십시오.

○ 몇시입니까?

△ 5시입니다. 렬차는 지금 동해안을 따라 달리고있습니다.

○ 벌써 그렇게 되였습니까?

△ 좀 있으면 동해의 해돋이를 구경할수 있습니다.

○ 서둘러야겠군요.

△ 이제 굽인돌이를 돌면 바다가 보입니다.

○ 아침노을이 붉게 타는걸 보니 인차 해가 솟아오를것 같습니다.

△ 아, 해가 솟기 시작합니다.

○ 해가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 커다란 불덩어리가 불쑥 솟아오릅니다.

○ 온 바다가 끓어번지는것 같습니다.

△ 동해의 해돋이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 정말 장쾌합니다.
△ 고기배들이 포구로 돌아옵니다.
○ 배마다 만선기를 휘날립니다.
△ 갈매기들이 배주위에서 훨훨 춤을 춥니다.
○ 마치 만선을 축하하는것 같습니다.

* *

△ 렬차원동무, 이 렬차는 정시로 달립니까?
○ 예, 이제 10분후이면 ××역에 도착합니다.
△ 그럼 내릴 준비를 해야겠군요.
○ 예, 차표를 받으십시오.
△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 수고는 무슨 수고겠습니까?
△ 렬차원동무가 잘 돌봐주어서 아무런 불편이 없이 왔습니다.
○ 천만의 말씀입니다.
△ 차가 플래트홈에 들어섭니다.
○ 잊으시는 짐이 없도록 잘 살펴보십시오.
△ 다 있습니다.
이번에 정말 즐거운 려행을 했습니다. 다시 만납시다.
○ 목적지까지 안녕히 가세요.

21. 거리에서

△ 동무, 미안하지만 말씀 좀 물어봅시다.
○ 예, 어서 말씀하십시오.
— 예, 무슨 말씀입니까?
— 예, 어서 물으십시오.
△ 김일성종합대학에 가자면 어떻게 가야 합니까?

○ 평양이 처음입니까?
△ 예, 말은 많이 들었지만 이렇게 오기는 처음입니다. 방금 렬차에서 내리는 길입니다.
○ 아, 그렇군요. 그럼 택시를 리용하시지요.
△ 아니, 택시를 타면 잘 익혀둘수 없습니다.
○ 참 그렇겠습니다.
그럼 나와 함께 갑시다.
△ 바쁘시겠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길만 대주면 혼자서 찾아가겠습니다.
○ 괜찮습니다. 나도 그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 그렇습니까? 그럼 마침 잘됐습니다.
○ 저기 정류소에 가서 전차를 탑시다. 그 짐을 하나 주십시오.
△ 일없습니다. 무겁지 않아서 혼자서 들고 갈수 있습니다.
○ 그러지 말고 이리 주십시오.
△ 이거 수고를 끼쳐서 미안합니다.
○ 미안할게 있습니까?
자, 먼저 오르십시오.
△ 고맙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평양의 거리들을 좀 설명해주십시오.
○ 그렇게 합시다.
△ 저 건물은 무슨 집입니까?
○ 평양백화점입니다. 그옆에 있는것은 어린이백화점입니다.
△ 저쪽 길로는 어디로 갈수 있습니까?
○ 백화점 오른쪽 길로는 창광거리로 갈수 있고 왼쪽길로는 천리마거리에 갈수 있습니다.
△ 아, 창광거리와 천리마거리에 대해서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사진에서도 많이 보았습니다.

○ 짬을 내서 한번 직접 돌아보십시오.

△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집이 평양대극장이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대극장을 인차 알아보는군요.

△ 우리 동무의 아버지가 10년전에 평양에 왔다갔는데 그때 바로 이 극장을 배경으로 여러장의 사진을 찍었더군요.

○ 10년전이면 퍽 오래전 일이군요.

△ 예,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 사이에 평양은 몰라보게 달라졌겠지요?

○ 1년전에 왔다간 사람도 평양에 다시 와보고 깜짝 놀랍니다.

△ 왜 안그렇겠습니까?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70돐을 맞으면서도 수많은 대기념비적건축물들을 일떠세웠다지요?

○ 예, 여기가 김일성광장입니다.

저 대동강건너편에 하늘높이 솟은것이 주체사상탑입니다.

△ 야, 굉장합니다.

주체사상탑은 높이가 얼마입니까?

○ 170메터입니다. 봉화높이만 해도 20메터입니다.

△ 꼭같은 건물이 량쪽에 있는데 무슨 집입니까?

○ 왼쪽에 있는것이 조선중앙력사박물관이고 오른쪽에 있는것이 조선중앙미술박물관입니다.

△ 광장쪽에도 큰 건물들이 많구만요.

○ 그건 국가기관청사들입니다.

△ 저 높은곳에 있는 건물은 무슨 집입니까?

○ 인민대학습당입니다.

△ 건물이 참으로 웅장화려합니다.

장서가 얼마나 됩니까?

○ 3,000만부입니다.

△ 대단합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평양에서 제일 좋은 자리인 저곳을 아껴두셨다가 전체 인민이 공부하는 대학습당을 세워주셨습니다.

△ 이것은 모든것을 인민을 위해 바치는 나라, 전체 인민이 마음껏 공부할수 있는 《배움의 나라》, 《교육의 나라》에서만 있을수 있는 일입니다.

○ 옳은 말씀입니다.

△ 저 건물은 무슨 집입니까?

○ 평양제1백화점입니다. 그 저쪽에 있는 건물은 만수대예술극장입니다.

△ 만수대예술극장은 사진에서 많이 봐나서 알만한데 평양제1백화점은 처음 봅니다.

○ 그렇겠습니다. 원래 여기에는 일제시기에 지은 백화점이 있었는데 일제놈들은 그것을 7년이상 걸려서 지었습니다.

△ 이 백화점을 짓는데는 몇년이 걸렸습니까?

○ 이 백화점은 그전에 있던것보다 25배나 더 큰데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건설했습니다.

△ 놀라운 일입니다.

저 건물이 평양학생소년궁전이군요.

○ 옳습니다.

△ 여기는 어디입니까?

○ 창전네거리입니다. 왼쪽으로 가면 보통강쪽으로 갈수 있고 바른쪽으로 가면 대동강을 건너서 동평양으로 갈수 있습니다.

△ 저 다리는 무슨 다리입니까?

○ 대동강을 건너가는 옥류교입니다.

△ 옥류교는 언제 건설했습니까?

○ 1960년 8월에 준공되였습니다.

△ 다리이름을 왜 《옥류교》라고 합니까?

○ 저 다리 이름이 《옥류교》로 된데는 뜻깊은 사연이 깃들어있습니다.

△ 어떤 사연입니까?

○ 다리가 거의 완성단계에 들어선 어느날 건설장을 또다시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 다리이름을 《옥류교》라고 지어주셨습니다.

△ 수령님께서요?

○ 예,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구슬같이 맑은 물이 흐르는 대동강에 놓는 다리라는 뜻에서 《옥류교》라고 이름지으셨습니다.

△ 참 깊은 뜻이 담겨있군요.

○ 그뿐이 아닙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다리이름을 써주실것을 바라는 우리 인민의 절절한 념원을 헤아리시여 손수 《옥류교》라는 귀중한 친필을 써보내주셨습니다.

△ 그럼 다리이름판에 새겨진 《옥류교》라는 글발이 위대한 수령님의 친필입니까?

○ 그렇습니다.

△ 참으로 뜻깊은 다리입니다.

○ 저기가 만수대언덕입니다.

△ 아,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높이 모신 조선혁명박물관이군요.

○ 그렇습니다.

△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언제 모셨습니까?

○ 1972년 4월,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60(예순)돐을 맞으며 모셨습니다.

△ 박물관도 그때에 건설했습니까?

○ 예, 이 박물관은 1948년 8월에 국립중앙해방투쟁박물관으로 창설되였다가 1960년 8월에 조선혁명박물관으로 그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 박물관이 참으로 웅장하고 현대적입니다.

○ 저것이 천리마동상입니다.

△ 천리마가 구름을 헤가르며 하늘로 날아오르는것 같습니다. 조선의 혁명적기상을 참 훌륭히 상징하고 있습니다.

○ 지금 우리 인민은 천리마보다 더 높은 속도,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내달리고있습니다.

△ 천리마동상은 언제 세웠습니까?

○ 1961년 4월에 세웠습니다.

△ 동상의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 동상의 높이만 16메터이고 축대까지 포함하면 50메터가 넘습니다.

△ 저것이 개선문이 아닙니까?

○ 옳습니다.

△ 사진에서 보던것보다는 비할바없이 웅장합니다. 높이가 얼마입니까?

○ 60메터입니다.

△ 대단합니다.

○ 저 오른쪽에 있는것이 김일성경기장입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바로 저 경기장에서 1945년 10월 개선연설을 하시였다지요?

○ 예, 그때는 물론 저런 현대적인 경기장이 아니라 공설운동장이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란봉공설운동장, 그다음에는 모란봉경기장으로 불리우다가 완전히 새롭게 현대적으로 개건확장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70돐에 즈음하여 김일성경기장으로 부르게 되였습니다.

△ 경기장의 수용능력은 얼마나 됩니까?

○ 본래 모란봉경기장은 7만여명을 수용할수 있었는데 지금은 10만여명을 수용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람석에는 30메터의 폭을 가진 채양을 씌웠습니다.

△ 경기장의 시설들도 다 새롭게 꾸렸습니까?

○ 그렇습니다. 이전 모습을 거의 찾아볼수 없게 모든것을 새롭게 꾸렸습니다.

△ 경기장을 새롭게 개건확장하는데 시일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 넉달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제일 추운 겨울동안이였습니다.

△ 참으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 그것이 모두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때문입니다.

△ 옳은 말씀입니다. 현명한 령도가 없이는 이런 기적을 상상도 할수 없습니다.

○ 여기가 전승동정류소입니다. 여기서 내려서 조금만 걸어가면 종합대학입니다.

△ 오늘은 차를 타고 지나면서 평양의 거리를 보았지만 이제 모든것을 다시 구체적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친절히 가르쳐주어서 고맙습니다.

○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럼 평양에 체류하는 기간 건강한 몸으로 잘 지내기 바랍니다.

△ 안녕히 가십시오.

○ 안녕히 가십시오.

〔보충〕

— 김일성종합대학이 어느 거리에 있습니까?

• 금성거리에 있습니다.

— 여기서 금성거리에 가자면 어떻게 가야 합니까?

• 여기서 전차를 타고 가다가 지하철도 혁신역앞에서 내려서 지하철도를 리용하면 됩니다. 혁신역에서 두 정거장을 가면 삼흥역인데 거기서 내리면 됩니다.

— 안내원동무, 삼흥역으로 가자면 어느쪽에서 타야 합니까?

• 왼쪽에서 타십시오.

— 미안하지만 국제우편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 이 길로 곧추 가다가 왼쪽으로 꺾어들어가면 있습니다.

— 평양산원으로 가자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여기서 전차를 타고 옥류교를 건너서 둘째정류소에서 내리면 됩니다.

— 창광원이 어느 집입니까?

• 저기 탑처럼 높이 서있는 집이 창광산려관인데 그 오른쪽에 둥글게 지은 집이 창광원입니다.

22. 지하철도

△ 평양제1백화점에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는것이 좋습니까?

○ 지하철도를 리용하는것이 편리합니다.

△ 어디서 타고 어디서 내려야 합니까?

○ 전우역에서 타고 승리역에서 내리면 됩니다.

△ 전우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전우역에는 지상에 있는 전우역을 통해 들어갈수도 있고 전승역을 통해 들어갈수도 있습니다.

△ 지상에 있는 전승역으로 들어가면 전우역으로 직접 갈수 없습니까?

○ 전승역으로 들어가서 계단승강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면 두갈래의 길이 있는데 오른쪽으로 가면 전우역이 있고 왼쪽에 전승역이 있습니다.

△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전승역은 지하철도 교차점에 있군요.

○ 그렇습니다. 지상에 있는 전우역으로 들어가도 전우역과 전승역에 갈수 있습니다.

△ 전우역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가는 전동차를 탈수 있습니까?

○ 지하역에 들어서서 오른쪽에서 타면 개선역, 통일역, 승리역, 봉화역으로 갈수 있고 왼쪽에서 타면 붉은별역으로 갈수 있습니다.

△ 전승역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갈수 있습니까?

○ 지하역에 들어가 오른쪽에서 타면 혁신역, 건설역, 황금벌역, 건국역, 광복역으로 갈수 있고 왼쪽에서 타면 삼흥역, 락원역으로 갈수 있습니다.

△ 김일성경기장에 가자면 어디서 내려야 합니까?

○ 개선역에서 내리면 됩니다. 개선역에서 내려서 지상에 올라오면 개선문과 김일성경기장이 있습니다.

△ 승리역에서 내리면 어디에 갈수 있습니까?

○ 김일성광장, 인민대학습당, 만수대예술극장, 평양제1백화점에 갈수 있습니다.

△ 지하철도로 대성산에 갈수 있습니까?

○ 물론입니다. 락원역에서 내려 지상에 올라가면 바로 대성산유원지가 있습니다.

△ 잘 알았습니다. 그럼 제1백화점에 나가봅시다.

○ 그렇게 합시다.

* *

△ 전동차가 몇분에 한대씩 달립니까?

○ 3분 내지 5분에 한대씩 달립니다. 그러나 아침 출근시간에는 2분에 한대씩 달립니다.

△ 얼마 기다리지 않고 차를 탈수 있겠군요.

○ 그렇습니다. 지하역에 내려오자마자 차를 탈수 있습니다.

△ 저 시계는 무슨 시계입니까?

○ 오른쪽것은 보통시계이고 왼쪽것은 앞서간 전동차와 뒤에 오는 전동차사이의 시간을 가리키는 시계입니다.

△ 그러니까 앞의 차가 떠난지 2분이 지났군요.

○ 예, 종이 울리는걸 보니 차가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 아, 벌써 차소리가 들립니다. 3분만에 차가 들어왔습니다.

○ 자, 어서 탑시다.

△ 차가 참 빠르군요.

○ 보통 한 정거장사이가 2~3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 그러니까 승리역까지는 몇분이나 걸립니까?

○ 승리역까지 세정거장사이니까 머무는 시간까지 합하여 한 10분 걸립니다.

△ 여기가 개선역입니까?

○ 그렇습니다.

△ 잠간 내렸다 가지 않겠습니까?

○ 그렇게 합시다.

△ 그런데 역이름을 왜 《개선》이라고 불렀습니까?

○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1945년 10월 14일 력사적인 조국개선연설을 하신 뜻깊은곳인 김일성경기장옆에 자리잡고있기때문입니다.

△ 참 유서깊은곳에 자리잡은 역입니다.

○ 그래서 역의 정면에 개선연설을 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반신상을 정중히 모셨습니다.

△ 이 벽화들은 무엇을 형상한것입니까?

○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개선을 열광적으로 환영하는 전체 인민의 모습을 형상한것입니다.

△ 벽화가 참 생동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든것입니까?

○ 여러가지 색갈을 가진 수천수만개의 타일을 다듬어서 붙인 쪽무이벽화입니다.

△ 역마다 이런 벽화가 다 있습니까?

○ 예, 다 있습니다. 매 역의 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내용을 가진 벽화들이 다 있습니다.

△ 마침 차가 들어옵니다.

○ 그럼 또 가봅시다.

△ 여기가 통일역이니까 다음역이 승리역이겠군요.

○ 그렇습니다. 이제 한 정거장만 더 가면 승리역입니다.

△ 통일역에서 내리면 어디로 갈수 있습니까?

○ 조선혁명박물관에 갈수 있습니다. 통일역을 나서면 바로 모란봉청년공원이고 아동백화점과 옥류관에도 갈수 있습니다.

△ 벌써 승리역에 다 왔습니다.

○ 자, 내립시다.

△ 이 역은 왜 승리역이라고 합니까?

○ 우리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경축한 김일성광장옆에 자리잡고 있기때문에 승리역이라고 이름지었습니다.

△ 아, 여기에 전승의 주석단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이 모셔져있군요.

○ 예, 그리고 벽화에는 평양시의 중심부가 형상되여있습니다.

△ 참으로 평양지하철도는 웅장화려합니다. 지하에 또 하나의 평양이 펼쳐져있습니다.

○ 그러기에 사람들은 평양지하철도를 《지하궁전》이라고 한답니다.

23. 체육, 경기

△ 영철동무, 오늘 김일성경기장에서 축구경기가 있답니다.

○ 그래요? 몇시부터 한답니까?

△ 오후 5(다섯)시부터 합니다.

○ 어느 팀과 어느 팀이 경기를 합니까?

△ 《압록강》팀과 《대동강》팀이 합니다.

○ 그것 볼만하겠습니다.

△ 두 팀이 다 괜찮은가요?

○ 예, 축구에서는 늘 1, 2등을 다투는 팀들입니다.

△ 구경하러 가지 않겠습니까?

○ 표를 구하기 힘들겠는데…

△ 표는 내가 부탁을 해놓았습니다.

○ 그럼 갑시다.

*　　　　*

△ 벌써 경기장에 사람들이 꽉 찼구만요.

○ 오늘 《만경대상》쟁탈전 결승경기이니까 축구애호가들이 더 많이 온것 같습니다.

△ 저 사람들은 경기를 시작하기전부터 응원을 하는군요.

○ 선수들의 사기를 높여주자는거지요.

△ 방송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 이제 곧 선수들이 입장한다고 합니다.

△ 심판들이 나왔습니다.
주심과 부심(선심)들이 누군지 모르겠습니까?

○ 주심은 국제심판원 리칠수이고 부심은 국제심판원 박정민, 공화국심판원 최명호동무들입니다.

△ 선수들이 나옵니다.
어느 팀이 《압록강》팀입니까?

○ 아래우에 흰 운동복을 입고 오른쪽을 차지한 팀이 《압록강》팀입니다.

△ 《압록강》팀의 주장은 누구입니까?

○ 공훈체육인 안봉철동무입니다.
그는 세계적으로 이름난 선수입니다.

△ 《대동강》팀의 먼저차기로 경기를 시작하는군요.

○ 그렇습니다. 지금 공을 잡은 《대동강》팀의 중앙공격수도 공훈체육인입니다.

△ 그도 주장입니까?

○ 아닙니다. 《대동강》팀의 주장은 6번을 단 중간방어수입니다.

△ 두 팀의 전술체계가 어떠합니까?

○ 지금은 두 팀 다 4, 2, 4체계로 경기를 진행하고있습니다.

△ 《압록강》팀 10번 선수의 공몰기가 괜찮습니다.

○ 《대동강》팀 4번에게 걸렸습니다.

△ 방어를 아주 책임적으로 합니다.

○ 《대동강》팀이 반공격으로 넘어갔습니다.

△ 긴공련락과 짧은공련락을 배합하면서 공격하고있습니다.

○ 《압록강》팀의 방어를 뚫기 힘들것입니다.

△ 벌써 공격수들까지 들어와서 방어진을 이루었습니다.

○ 저 오른쪽날개가 만만치 않은 선수입니다.

△ 꼴문앞으로 보기 좋게 공을 띄워주었는데 그만 상대편 방어수가 먼저 머리받기로 막아냈습니다.

○ 좋은 기회였는데 한발 늦었습니다.

△ 슛! 문지기가 날쌔게 잡았습니다.

○ 참 아쉽게 됐는데…

*　　　　*

△ 전반전은 결국 무승부로 끝나게 되였군요.

○ 《압록강》팀에서 공격위반이 되지 않았다면 한점을 얻는걸 그랬습니다.

△ 멋있는 장면이였는데 그렇게 되였습니다.

○ 후반전이 더 치렬할것이 예견됩니다.

△ 어느 팀이 이길것 같습니까?

○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두고봐야 할것 같습니다.

*　　　　*

△ 영철동무, 체육관에 가지 않겠습니까?

○ 거기서 뭘 한답니까?

△ 국제녀자배구경기가 있는데 아직 모르고있습니까?

○ 소문은 들었는데 언제부터 하는지는 모르고있었습니다.

△ 머리도 쉬울겸 한번 가봅시다.

○ 텔레비죤으로는 나오지 않습니까?

△ 그래도 직접 가보는것이 더 흥미있습니다.

○ 그럼 같이 갑시다.

* *

△ 두 팀 선수들이 모두 키도 크고 동작도 날랩니다.

○ 처넣기를 아주 기술적으로 합니다.

△ 예, 공이 그물에 닿을듯말듯하면서 넘어갑니다.

○ 힘든 공인데 받기를 침착하게 잘했습니다.

△ 아차, 련락이 잘못되여 타격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 상대편에 좋은 기회를 마련해주었습니다.

△ 강타!

○ 막기에 성공했습니다.

△ 드디여 처넣기를 빼앗아냈군요.

○ 처넣기한 공이 그물에 걸렸습니다.

△ 처넣기를 잘해야 되는데…

○ 그렇습니다. 처넣기가 선수들의 사기도 높여주고 경기에서 주도권을 쥐게 하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 아, 순간타격을 아주 재치있게 했습니다.

○ 예, 높은공타격을 할줄 알았는데 순간타격으로 한점 올렸습니다.

△ 지금 점수가 어떻게 되였습니까?

○ 3대 3, 동점입니다.

△ 왜 경기를 중단시켰습니까?

○ 4(네)번치기반칙입니다.

△ 그물에 걸린 공을 또 쳤군요.

○ 예.

△ 저 선수의 살짝공을 주의해야겠습니다.

○ 예, 그 선수는 경기경험이 많은것 같습니다.

△ 아쉽게도 그물다치기반칙이 되였습니다.

○ 그물만 다치지 않았으면 한점을 올리는건데…

△ 1회전이 끝났군요. 15대 13, 비슷비슷합니다.

○ 두 팀이 기술이 비슷한 조건에서는 전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 지도원들이 전술을 잘 짜야 될것 같습니다.

○ 저 팀은 높은공타격을 위주로 하는것 같습니다.

△ 거기에다 순간타격, 살짝공을 배합하면 더 많이 성공할수 있는데…

○ 2회전에서는 그렇게 할것 같습니다.

* *

△ 결국 3대 2로 끝났군요.

○ 오늘 경기는 정말 아슬아슬한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 처음부터 손에 땀을 쥐고 봤습니다.

○ 두 팀 선수들이 모두 훌륭한 기술과 재치있는 동작들을 보여주었습니다.

△ 이번 경기는 승자전입니까? 련맹전입니까?

○ 련맹전입니다.

△ 그러니까 오늘 이긴 팀도 자만할 근거는 없군요.

○ 예, 진 팀도 락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기종목

△ 륙상경기

100메터달리기
이어달리기
장애물경기
걷기경기
마라손
너비뛰기
높이뛰기
창던지기
원반던지기
포환던지기
자전거경기
모터찌클경기

△ 구기

축구
배구
롱구
탁구
정구
송구
야구
투구
바드민톤

△ 중경기

권투
레스링
유술
력기

△ 기계체조

철봉경기
평행봉경기
조마경기
륜경기

△ 예술체조

도수경기
댕기경기
륜경기
곤봉경기

△ 수영경기

뛰여내리기
뺃헤염
나비헤염
개구리헤염
누운헤염

△ 빙상경기

속도빙상
혹케이
휘거
스키

△ 국방경기

사격
수류탄던지기
강행군
장애물극복
락하산경기

△ 민족경기

씨름
그네뛰기
널뛰기
바줄당기기
활쏘기

△ 체조

집단체조
인민보건체조
아침체조
업간체조

△ 체육, 경기 용어

경기장
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빙상관
관람석
심판석
시상대
출발선
결승선
지도원
공격수
방어수
문지기
먼저차기
벌차기
점수판
선수
대기선수
후보선수
기둥선수
주장
심판
주심
부심
선심
처넣기
두번치기
네번치기
들어올리기
그물다치기
탁구판

구석차기	탁구그물
공격위반	탁구채
손다치기	탁구공
바깥	단식경기
복식경기	기록을 세우다
개인전	기록을 깨뜨리다
단체전	기록보유자
밀어치기	선수권
걸어치기	선수권대회
깎아치기	선수권보유자
예선(경기)	우승컵
준결승전	금메달
결승전	은메달
세계기록	동메달

24. 명절, 축하

△ 오래지 않아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기념일을 맞게 되는군요.

○ 예, 이제 한주일이 남았습니다.

△ 벌써부터 명절분위기로 흥성거립니다.

○ 우리 나라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로 뜻깊게 기념하고있습니다.

△ 조선에서는 이 날을 어떻게 기념합니까?

○ 4.15명절날 아침에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에 꽃바구니를 올리고 만수축원의 인사를 드립니다.

△ 종합대학에서도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에 꽃바구니를

드리겠군요.

○ 물론입니다. 이날 룡남산언덕은 온통 꽃바다로 변하고 대학과 각 학부, 단위들, 주변 기관, 기업소들에서 올리는 꽃바구니들로 꽃물결을 이룹니다.

△ 그다음에 어떤 행사들이 있습니까?

○ 경기장, 체육관들에서는 여러가지 체육경기가 진행되고 공원, 유원지들에서는 다채로운 명절놀이들이 벌어집니다.

△ 종합대학에서는 체육경기를 어떻게 합니까?

○ 학부대항 경기를 합니다. 명절을 앞둔 며칠전부터 예선을 하고 명절날에 결승경기들을 진행합니다.

△ 그거 볼만하겠습니다.

○ 예, 모든 경기들이 그야말로 백열전을 이룹니다.

△ 명절놀이는 어떻게 합니까?

○ 주로 가족, 친척들이 함께 모여서 만경대를 비롯하여 모란봉, 대성산, 릉라도, 보통강 유원지들에 가서 명절을 즐깁니다. 이날 이름있는 배우들이 공원, 유원지에 나가 다채로운 공연을 하여 명절을 즐기는 근로자들을 더욱 기쁘게 합니다.

△ 만경대에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겠지요?

○ 예, 만경대에 가는 사람들로 길은 꽉 메고 만경대는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 명절날밤은 어떻게 보냅니까?

○ 김일성광장을 비롯한 여러 광장들에서 명절기념야회가 있습니다.

△ 야회는 어떻게 합니까?

○ 배우들이 부르는 노래와 취주악에 맞추어 수만

명 군중이 춤을 추며 즐깁니다.

△ 축포는 쏘지 않습니까?

○ 축포도 쏩니다. 대동강변에서는 축포를 쏘고 강에서는 꽃배놀이가 벌어집니다.

△ 굉장하겠습니다.

○ 예, 하늘은 오색찬란한 꽃구름으로 뒤덮이고 강은 꽃바다를 이룹니다.

△ 또 어떤 행사들이 있습니까?

○ 중앙과 지방의 과학연구기관과 대학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고매한 덕성에 대한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토론회들이 있고 극장 무대들에서는 특별공연을 하며 영화관들에서는 기념영화상영순간이 진행되고 라지오와 텔레비죤에서는 특별기념방송을 합니다.

△ 명절날이 손꼽아기다려집니다.

○ 나 역시 같은 심정입니다.

△ 나는 명절날 행사들에 다 참가하고싶습니다.

○ 우리 함께 참가합시다.

〔보충〕

— 새해를 축하합니다.
— 새해에도 학습에서 더 많은 성과를 거두기 바랍니다.
— 새해에도 사업과 생활에서 훌륭한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 새해에 더 큰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 당창건기념일을 축하합니다.

— 공화국창건기념일을 축하합니다.
— 국경절을 축하합니다.
— 명절을 축하합니다.
— 명절을 즐겁게 보내기를 바랍니다.
— 명절에 즈음하여 우리의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립니다.
— 명절을 축하하여 이 잔을 들것을 제의합니다.
— 이자리에 참석한 여러 동지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잔을 들것을 제의합니다.
— 대학입학을 축하합니다.
— 졸업을 축하합니다.
— 새로운 일터에서도 일을 잘하기 바랍니다.
— 높은 표창을 받은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 우리 사업에 커다란 관심을 돌려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진심으로 도와주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 축원해주어서 고맙습니다.
— 무엇이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렸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 즐겁고 행복한 려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 공연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기를 축원합니다.
— 훌륭한 공연을 보여준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 공연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둔데 대하여 축하를 드립니다.
— 경기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 영예의 제1위를 한데 대하여 축하합니다.
— 새기록을 세운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5. 개선문, 주체사상탑 참관

△ 개선문은 언제 보아도 숭엄한 감정을 자아냅니다.

○ 구체적으로 돌아본 일이 있습니까?

△ 오늘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진에서나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보았을뿐입니다.

○ 그럼 오늘 구체적으로 봅시다.

△ 개선문은 언제 세웠습니까?

○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70(일흔)돐을 맞으며 준공하였습니다.

△ 개선문의 높이는 얼마나 됩니까?

○ 60메터입니다.

△ 대단합니다. 15층짜리 아빠트보다 훨씬 더 높은것 같습니다.

○ 이 지하건늠길로 해서 개선문구내에 들어가 봅시다.

△ 저 《1925》, 《1945》라는 년대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25년에 조국광복의 큰 뜻을 품으시고 만경대를 떠나시였습니다. 그후 20성상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여 1945년에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고 평양에 개선하시였습니다. 바로 저 년대는 이러한 뜻깊은 해들을 상징하고있습니다.

△ 저 벽면에 새겨진 글발은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업적을 칭송하여 앞면벽에는 1절을, 뒤면벽에는 2절을 새겼습니다.

△ 불멸의 혁명송가의 장중한 선률이 울려오는듯합니다.

저 옆면 웃부분에 부각된것은 백두산이군요.

○ 예,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상징하고있습니다.

△ 기둥 아래부분에 있는 부각상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한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승리와 조국해방, 경애하는 수령님을 해방된 조국땅에 높이 모신 우리 인민의 기쁨과 감격, 새 조국 건설에 떨쳐나선 근로자들의 희망찬 모습을 보여주고있습니다.

△ 개선문테두리에 부각한것은 진달래꽃송이가 아닙니까?

○ 옳습니다. 여기에는 70(일흔)송이의 꽃송이가 부각되여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70(일흔)돐에 즈음하여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충성의 마음을 담아 이 개선문을 세웠다는것을 상징하고있습니다.

△ 그러니까 개선문의 모든 구성부분에는 참 뜻깊은 내용이 담겨져있군요.

○ 개선문의 위치도 유서깊은곳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45년 10월 14일 개선문과 잇닿아있는 저 김일성경기장에서 력사적인 개선연설을 하시였습니다.

△ 김일성경기장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해주십시오.

○ 원래 이 경기장은 모란봉공설운동장이였습니다. 그러던것을 모란봉경기장이라고 불렀고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70돐을 맞이하여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개건확장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사적을 길이 전하기 위하여 그 이름을 김일성경기장이라고 부르게 되였습니다.

△ 경기장의 규모는 어떠합니까?

○ 10만명의 수용능력을 가지고있습니다. 그리고 관람석에는 30메터의 폭을 가진 채양이 씌워져 있습니다.

△ 굉장하구만요!

○ 경기장에는 여러가지 현대적인 체육시설들과 대형광폭화면을 펼쳐보일수 있는 배경대가 있고 선수들과 관람자들을 위한 문화후생시설들과 편의봉사시설들도 충분히 갖추어져있습니다.

△ 언제 한번 들어가볼수 있겠지요?

○ 있구말구요. 며칠후부터 국제축구경기가 있는데 그때 와서 구경합시다.

△ 그럼 주체사상탑으로 갑시다.

○ 예, 그렇게 합시다.

*　　　*

△ 주체사상탑은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70돐에 즈음하여 제막하였다지요?

○ 예.

△ 탑의 높이는 얼마나 됩니까?

○ 170메터입니다.

△ 대단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기념탑가운데서 세계에서 제일 높은것 같습니다.

탑신우에 있는 봉화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 영생불멸의 주체의 빛발을 상징하고있습니다.

△ 탑신의 앞뒤면에 《주체》라는 글발이 부각되여있

군요.

탑신앞에 있는 로동자, 농민, 인테리의 3인군상은 무엇을 형상하고있습니까?

○ 주체의 홰불을 들고 당의 기치따라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기상을 형상하고있습니다.

△ 탑기단 앞면에 새겨진 글은 무엇입니까?

○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은덕을 칭송한 헌시입니다.

△ 한번 읊어봅시다.

○ 예, 같이 읊어봅시다. …

△ 기단의 량옆에는 꽃바구니를 부각하였군요.

○ 예, 그 꽃바구니에는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충성의 한마음을 담아 김일성화와 목란꽃을 부각하였습니다.

△ 이 고급석재는 무엇입니까?

○ 주체사상탑을 건설한다는것을 알고 세계 여러나라 지도자들과 이름있는 정계, 사회계 인사들, 주체사상신봉자들이 정성담아 보내온 진귀한 석재의 일부입니다.

△ 주체사상탑은 전세계인민들의 커다란 관심속에 건설되였군요.

○ 그렇습니다. 이 주체사상탑에는 우리 인민뿐아니라 전세계혁명적인민들의 뜨거운 지성이 깃들어있습니다.

△ 이 화강석조각상들도 참 훌륭합니다.

○ 그것이 주체사상탑의 부주제군상들입니다.

△ 부주제군상들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 왼쪽에 있는것이 사회주의공업강국, 금성철벽, 무병장수를 형상한것이고 오른쪽에 있는것이 만풍년, 《배움의 나라》, 《교육의 나라》 그리고 주

체예술을 형상한것인데 이것들은 주체사상의 위대한 생활력을 보여주고있습니다.

△ 저 정각도 참 아담하고 우아한데요.

○ 주체사상탑을 중심으로 량옆에 꼭 같은 정각을 지었는데 두 정각사이가 주체사상탑의 구내로 됩니다.

△ 구내를 공원처럼 잘 꾸렸습니다.

○ 예, 탑의 량쪽에 수백개의 분수가 있고 넓은 공지에 갖가지 희귀한 나무들과 아름다운 꽃들을 심었습니다.

△ 대동강복판에 있는 저 분수는 얼마나 뿜어올립니까?

○ 저 대형분수는 150메터의 높이로 뿜어올립니다.

△ 정각과 분수가 주체사상탑과 잘 조화되여 아름다운 대동강변의 풍치를 한층 더 돋구어줍니다.
주체사상탑은 규모도 크고 그 사상적내용도 심오하고 건축형식에서나 조형예술적형상수준에서 비할바없이 훌륭합니다.

○ 개선문과 주체사상탑을 비롯한 대기념비들은 그 설계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모두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세심한 지도밑에 완성되고 짧은 기간에 건설되였습니다.

△ 나는 오늘 개선문과 주체사상탑을 참관한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바쁜 시간을 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어서 감사합니다.

○ 괜찮습니다.
그럼 이젠 돌아갑시다.

26. 만경대방문

△ 영철동무, 오늘 만경대에 간다지요?

○ 예, 이 날을 손꼽아기다리더니 기쁘겠습니다.

△ 정말 기쁩니다.
몇시에 떠납니까?

○ 10시에 떠납니다.

△ 그럼 준비를 서둘러야겠습니다.

○ 밖에 차가 와서 기다리고있으니 인차 준비해가지고 떠납시다.

△ 예, 이제 옷만 갈아입으면 됩니다. 사진기를 잊지마십시오.

○ 그건 념려마십시오.

△ 자, 이젠 됐습니다.

○ 그럼 떠납시다.

* *

△ 가면서 만경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 그렇게 합시다.

△ 만경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 평양에서 대동강을 따라 서남쪽으로 약 16키로메터(40리) 내려가다가 강기슭에 자리잡고있습니다.

△ 만경대로 가자면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 비파거리, 락원거리를 지나서 팔동교를 건는 다음 벌판가운데로 뻗은 큰길로 갈수도 있고 대

동강기슭을 따라 뻗어있는 평양—남포사이의 고속도도로로도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람선을 타고 대동강으로도 갈수 있습니다.

△ 우리는 어느 길로 갑니까?

○ 갈 때는 고속도도로로 가고 올 때는 벌판가운데에 난 길로 옵니다.

△ 그게 좋겠습니다.

만경대의 경치는 참 아름답다지요?

○ 이제 가보면 알겠지만 정말 아름다운고장입니다.

△ 요즘은 만경대에도 진달래, 살구꽃이 한창이겠군요?

○ 예, 만경대는 우리 인민의 뜨거운 지성에 의하여 사철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속에 묻혀있습니다.

△ 우리도 만경대를 그리는 마음이 간절한데 조선인민의 마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 이제 고속도도로에 들어섰습니다.

△ 승용차와 뻐스들이 꼬리를 물었군요!

○ 이 차들이 다 만경대로 가는것들입니다.

저쪽 대동강을 보십시오. 만경대로 가는 유람선들입니다.

△ 만경대로 가는 사람들이 늘 이렇게 많습니까?

○ 예, 만경대로 가는 길은 언제나 사람들의 물결로 차고 넘칩니다.

△ 저 산은 무슨 산입니까?

○ 그게 바로 만경봉입니다.

△ 그렇습니까? 아, 사진에서 보던 기억이 납니다.

○ 이젠 다 왔습니다.

먼저 만경대혁명사적관을 돌아봅시다.

△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사적관에 대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이 사적관에는 어떤 내용이 전시되여있습니까?

○ 만경대혁명사적관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탄생하신 때로부터 수령님께서 조국광복을 이룩하시고 만경대고향집을 찾으신 때까지의 빛나는 혁명투쟁력사를 보여주는 자료들이 전시되여있습니다.

△ 사적관은 모두 몇개의 방으로 되여있습니까?

○ 6개 방으로 되여있습니다.

그럼 첫방부터 보시겠습니다.

(제1호실)

○ 아버님이신 김형직선생님으로부터 만경봉에서 애국주의교양을 받으시는 어린 시절의 위대한 수령님이십니다.

(제2호실)

○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탄생하시여 어린 시절을 보내시던 1910년대의 만경대의 전경을 보여주는 사판입니다.

△ 그때는 만경대가 자그마한 농촌이였군요.

○ 그렇습니다. 그때 만경대에는 몇집 안되는 가난한 농민들이 지주놈의 땅을 부치면서 살고있었습니다.

△ 만경대고향집이 어느 집입니까?

○ 바로 이 집입니다. 이 집은 지주놈의 묘를 보

아주는 산당집이였는데 위대한 수령님의 증조할아버님대로부터 대대로 이 집에서 살아오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가정은 대대로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워온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이였습니다.

— 증조할아버님이신 김응우선생님은 1866년 미제침략자들이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의 척후대로 파견한 해적선 《샤만》호를 격침시키는 싸움의 선두에 서신 애국자이시였습니다.

△ 미국놈들이 그때부터 벌써 조선을 침략하기 시작했습니까?

○ 예, 미제국주의자들의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의 력사는 100여년전부터 시작되였습니다.

— 할아버님이신 김보현선생님과 할머님이신 리보익녀사는 자손들의 혁명투쟁을 뒤받침해주시면서 일제의 모진 탄압과 박해에도 굴함없이 민족적절개를 굳건히 지키시고 침략자에 항거하여 강의하게 싸우신 애국자들이시였습니다. 할아버님과 할머님께서는 해방후에도 이곳 만경대에서 하루도 일손을 놓지 않으시고 부지런히 농사를 지으시다가 세상을 떠나시였습니다.

△ 해방후에도 농사를 지으셨습니까?

○ 예, 할아버님과 할머님께서는 손자는 나라의 수령이지만 우리는 농민이라고 하시면서 나라에 보탬을 주기 위하여 농사일을 하시면서 소박하게 사시였습니다.

△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제3호실)

○ 이 방에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아버님이신 김형직선생님의 혁명활동자료들이 전시되여있습니다.

—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지원(원대한 뜻)》의 뜻을 품으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시였으며 일찌기 중학시절부터 반일투쟁을 지도하시였고 1917년 3월 23일에는 반일지하혁명조직인 조선국민회를 결성하시였습니다.

△ 이것이 선생님께서 지으신 《남산의 푸른 소나무》라는 시가 아닙니까?

○ 옳습니다.

조선국민회사건으로 1917년 가을 일제경찰에 검거되신 선생님께서는 1년동안 옥중에서 싸우시다가 1918년 가을에 출옥하시였습니다.

감옥에서 나오신후 고향집에서 병치료를 하시던 어느날 선생님께서는 지팡이에 의지하여 소나무가 우거진 남산으로 오르시였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는 이 시를 지으시였습니다.

△ 이 시에는 김형직선생님의 백절불굴의 투쟁정신과 필승의 신념이 그대로 표현되여있습니다.

○ 선생님께서는 혁명활동에 바쁘신 그 나날에도 자제분들을 열렬한 애국자로, 훌륭한 혁명가로 키우시기에 모든 힘을 다하시였습니다.

— 참으로 김형직선생님은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전생애를 바쳐 싸우신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시였으며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였고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에로의 방향전환의 위대한 선구자이시였습니다.

(제4호실)

○ 이 방에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어머님이신 강반석녀사의 혁명활동자료들이 전시되여있습니다.

— 강반석녀사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낳아키우신 조선의 어머니로서 자신의 모든것을 오직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다 바쳐 싸우신 열렬한 공산주의자이시였으며 우리 나라 공산주의녀성운동의 선구자이시며 탁월한 녀성정치활동가이시였습니다.

○ 이 방에는 또한 경애하는 수령님의 삼촌이신 김형권선생님과 첫째동생이신 김철주동지, 사촌동생이신 김원주동지의 혁명활동자료들이 전시되여있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일찍부터 반일투쟁에 참가하여 견결히 싸우신 공산주의자들이시였습니다.

(제5호실)

○ 이 방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때로부터 항일유격대를 창건하신 때까지의 수령님의 빛나는 혁명력사를 보여주는 자료들이 전시되여있습니다.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1912년 4월 15일 이곳 만경대에서 일찌기 그 어느 력사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가장 위대한 혁명적가정에서 탄생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은 우리 민족의 반만년의 오랜 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대경사였습니다.

—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부모님들로부터 애국주의교양과 혁명적영향을 받으시며 성장하시였으며 부모님들의 혁명활동로정을 따라 강동, 중강, 림강, 팔도구를 비롯한 여러 지대로 자리를 옮기시면서 반일애국주의사상과 혁명적계급의식을 강하게 키워나가시였습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2살 나시던 1923년 3월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자면 조국의 현실을 알아야 한다는 아버님의 높은 뜻을 받드시고 혼자몸으로 팔도구로부터 천리길을 걸으시여 고향 만경대에 나오시였습니다.

△ 그 길이 바로 《배움의 천리길》이 아닙니까?

○ 옳습니다.

고향에 돌아오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외가집이 있는 칠골의 창덕학교에서 학습에 열중하시였습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4살때인 1925년 1월에 아버님께서 일제경찰에 체포되시였다는 비통한 소식을 받으시고 만경대를 떠나 《광복의 천리길》을 걸으시였습니다.

그때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굳은 맹세를 다지시며 압록강을 건느시였습니다.

△ 참으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맹세입니다.

○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15살 되시던 해인 1926년 6월 5일에 아버님께서 애석하게도 서거하시였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대를 이어 싸워서라도 기어이 조국의 광복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하신 아버님의 유언을 받드시여 혁명의 길에 나서시였습니다.

△ 그러니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5살 어리신 나이에

춘엄한 혁명의 길에 나서시였군요.

○ 그렇습니다.

— 무송, 화전 일대에서 혁명투쟁을 벌리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26년 10월 17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참다운 공산주의적혁명조직인 타도제국주의동맹(《ㅌ. ㄷ》)을 결성하시였습니다. 이때로부터 우리 혁명은 참다운 시원이 열려지고 자주의 기치밑에 새로운 발전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으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 길림을 중심으로 안도, 돈화, 무송, 오가자, 고유수를 비롯한 여러곳으로 투쟁무대를 옮기시면서 혁명활동을 정력적으로 벌리시였습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30년 6월 카륜에서 공청및반제청년동맹지도간부회의를 소집하시고 《조선혁명의 진로》라는 력사적인 보고를 하시였으며 여기에서 조선혁명의 주체적인 로선과 전략전술을 내놓으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조선혁명은 곧바른 승리의 길을 따라 전진할수 있게 되였으며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은 일대 전환의 시기에 들어설수 있게 되였습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력사적인 카륜회의에서 밝히신 주체적로선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진두에 나서시여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할수 있는 핵심적골간과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마련하시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1932년 4월 25일 안도에서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시였습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항일유격대를 창건하신 때까지의 빛나는 혁명력사는 혁명영화 《조선의 별》을 통하여 감명깊게 볼수 있었습니다.

○ 혁명영화 《조선의 별》이 바로 당시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예술적으로 형상한 영화입니다.

(제6호실)

○ 이 방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15성상에 걸치는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여 마침내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고 조국에 개선하신 내용을 학습하게 됩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에 개선하신 후에도 건당, 건국, 건군의 거창한 사업을 조직령도하시는 바쁘신 나날을 보내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45년 10월 10일 우리 당을 창건하시고 10월 14일 평양시환영군중대회에서 전체 조선인민에게 개선의 인사를 하신 다음 고향 만경대를 찾으시였습니다.

△ 그러니까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광복의 굳은 맹세를 다지시며 만경대를 떠나신 때로부터 20년만에 돌아오시였군요.

○ 그렇습니다. 꼭 20년만입니다. 그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그리운 할아버님, 할머님과 뜻깊은 상봉을 하시는 사진입니다.

△ 저는 만경대혁명사적관 참관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과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에 대하여 잘 알수 있었습니다. 친절히 해설해주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우리 사적관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관해주신

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럼 고향집으로 가시겠습니다.

*　　*

△ 고향집에 들어서는 저의 마음은 숭엄한 감정에 휩싸여있습니다.

○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이 나지막한 초가집에서 탄생하시여 어린 시절을 보내시였습니다.

— 부엌에 있는것이 위대한 수령님의 가정에서 대를 물려오며 쓰시던 부엌세간의 전부입니다.

— 방안에는 할아버님과 할머님께서 귀중히 쓰시던 물건들과 아버님께서 쓰시던 책장과 책상이 그대로 보존되여있습니다.

— 이것은 할아버님께서 쓰시던 농쟁기들입니다.

— 이것은 할머님과 어머님께서 쓰시던 물레와 베틀입니다.

— 이것은 할머님과 어머님께서 쓰시던 독들입니다.

△ 이 독은 왜 이렇게 쭈그러들었습니까?

○ 할머님께서 독을 장만하시려고 장에 가셨다가 온전한 독은 비싸서 사지 못하시고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 독을 헐값으로 사오신것입니다.

△ 경애하는 수령님의 가정이 모진 가난속에서도 근면하고 소박하게 살아오신 자취를 잘 알수 있습니다.

○ 고향집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만경봉으로 오르겠습니다.

△ 그렇게 합시다.

이 사진은 나의 생활에서 가장 뜻깊은 하루를 영원히 기록하는 귀중한것으로 될것입니다.

○ 그럼 만경봉으로 오릅시다.

*　　*

△ 만경대에는 어떤 사적물들이 있습니까?

○ 이제 만경봉으로 오르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 여기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어린 시절 창덕학교에 다니실 때에 낚시질을 하시던 《낚시터》입니다.

어리신 원수님께서는 여기에 낚시줄을 드리우시고 책도 읽으시고 일제에게 빼앗긴 조국에 대하여 생각하시면서 애국의 큰 뜻을 키우시였습니다.

— 여기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어린 시절 학습에 열중하시던 《학습터》입니다.

어리신 원수님께서는 여기에 자주 오르시여 아버님으로부터 애국주의교양을 받으시였으며 창덕학교에서 공부하실 때에는 이곳에서 해가 지물 때까지 책을 읽으시면서 애국의 큰 뜻을 키우시였습니다.

— 여기는 《씨름터》입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어린 시절에 여기에서 동무들과 함께 씨름을 하시면서 몸을 단련하시였습니다.

— 여기는 《샘물터》입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어린 시절 아버님과 함께 이 샘물터에 오시여 샘물도 마시고 팽수

마찰도 하시면서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단련하시였습니다.

○ 이제 만경대정각에 올라갑시다.

△ 여기에 오르니 만경대가 한눈에 안겨오고 평양시내도 바라보이는군요.

○ 저 대동강 아래쪽을 보십시오.

△ 큰 굴뚝들이 보입니다.

○ 그것이 강선제강소의 굴뚝입니다.

△ 그러니까 여기서는 참으로 많은것을 볼수 있군요.

○ 예, 그래서 여기를 온갖 아름다운것이 다 모여있고 만가지 경치를 다 볼수 있다고 하여 예로부터 만경대라고 부른답니다.

△ 이제야 여기를 왜 만경대라고 하는지 그 뜻을 알겠습니다.

○ 만경대는 경치만 아름다운것이 아닙니다. 만경대는 혁명의 위대한 태양이 솟아오른 유서깊은 고장으로서 혁명의 요람으로 우리모두의 마음의 고향으로 그 이름이 더 빛나고있습니다.

△ 정말 그렇습니다.

나는 오늘 만경대방문을 통하여 그것을 깊이 느끼였습니다.

○ 이제 내려가면서 사적물들을 더 보겠습니다.

△ 잠간만 기다리십시오. 여기서 기념사진을 몇장 찍어야겠습니다.

○ 내가 찍어드리겠습니다.

⁂

— 이 소나무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어린 시절 무지개잡이를 하시던 나무입니다.

비가 개인뒤 만경봉에는 아름다운 무지개가 비끼였었습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고향집곁에 있는 들메나무에 걸려있었습니다. 어리신 원수님께서는 무지개를 잡으시려고 들메나무에 오르시였는데 무지개는 다시 이 소나무에 걸려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수님께서는 무지개를 따라 이 소나무에 오르시였습니다. 이 소나무와 들메나무는 어리신 원수님께서 아름다운 꿈을 키우신 뜻깊은 나무들입니다.

— 이것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어린 시절 동무들과 함께 군사놀이를 하시던 《군함바위》입니다.

어리신 원수님께서는 언제나 대장이 되시여 제일 앞에 있는 《군함》을 타시고 《**왜놈잡으러 가자!**》고 웨치시면서 동무들을 지휘하시였습니다.

— 이것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어린 시절 동무들과 함께 썰매를 타시며 몸을 단련하시던 《썰매바위》입니다.

△ 참으로 만경대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 바위 하나 그 어디에나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사적이 깃들어있군요.

○ 그렇습니다.

그럼 가는 길에 만경대의 갈림길에 들리겠습니다.

⁂

△ 여기가 만경대의 갈림길입니까?

○ 예, 이 큰 길로 계속 가면 남포로 갈수 있는데 그 중도에 강선이 있습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직후에 이 길로 강선제강소

를 찾아가셨습니까?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45년 10월 9일 강선제강소의 로동계급을 만나보러 가시다가 바로 여기서 차를 세우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만경대를 이윽토록 바라보시다가 20년만에 보는 고향이라고 하시면서 부관에게 늙으신 조부모님께 자신의 인사를 전해달라고 부탁하시고는 강선으로 떠나셨습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 고향보다 먼저 혁명을 생각하시는 그 높으신 뜻이 깃들어있는 유서깊은 사적지이군요.

○ 이제 사적비문을 읽어봅시다.

*　　*

△ 나는 오늘의 유서깊은 만경대방문을 일생동안 잊지 않을것입니다. 나는 만경대방문을 통하여 보고 들은 모든것을 가족들과 동무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이 책은 류학생들의 참고서이다

조선말회화

저자 김일성종합대학 준박사 권승모
심사자 김범주, 윤인환
편집자 리홍섭
낸곳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인쇄소 김일성종합대학인쇄공장
인쇄 1984년 1월 11일
발행 1984년 1월 15일

고—83—2800　　값 40 전　　1400부